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2023. 11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2023. 11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윤 유 리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센터 연구원/과장

공동연구원

안 미 선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센터 연구원/전문관

박 지 수

- 한국국제협력단 SDG프로그램팀 전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윤유리, 안미선, 박지수. 2023.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성남: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개발협력 분야 연구개발과 이에 기반한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개발협력 분야 연구개발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략정책 및 기술 등의 모든 방면에서의 연구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 이슈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나아가 아젠다 도출, 사업 효과성 제고, 관련 지식공유 및 환류, 미래 예측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개발협력 기관은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직 운영체계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관 차원에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며, 미래를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춰 개발협력 아젠다 도출, 연구 결과물 생산 및 지식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의 의미를 짚어보고, 개발협력기관 연구조직의 역할 및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 향후 KOICA의 연구조직의 기능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ECD(2015)에서는 연구개발을 인간, 문화 및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양을 늘리고 이를 응용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연구 개발은 일반적으로 사물, 현상,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인 조사를 일컫는다. 이밖에, 재무적,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어떠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에서 연구의 의미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발협력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개발협력 내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에서의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및 글로벌 위기 속에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 이슈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수요도 증대되고 있는바, 개발협력 분야에서 연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조직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요 개발협력 기관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다. KOICA에서는 ODA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를 연구하여 KOICA의 전략 및 사업 방향성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정책, 사업, 전략, 또는 협력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관련된 연구,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학술회의 및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공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KOICA와 유사한 운영체계를 갖춘 Norad, 연구가 하나의 본부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은 AFD, JICA 소속이긴 하나, 독립된 성격의 연구소를 갖춘 JICA RI, 그리고 독일의 독립된 개발협력 연구소인 IDOS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인 Norad는 새로운 지식의 개발,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의 연구 역량 강화, 연구 기반 지식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정책 입안 및 활용 등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Norad 외에도 노르웨이 연구의회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AFD는 2002년 연구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개발협력 실행기관으로서 80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지역적·사회적 맥락에 따른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 및 공공재, 혁신 재원 수단에 관한 연구 및 지식공유를 하고 있다. 현재 혁신연구지식본부가 연구, 전략, 평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며, 격년으로 국제 연구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JICA는 이사장 직속부서로 오가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및 일본의 개발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IDOS)라는 독립된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IDOS는 연구, 컨설팅 및 교육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 직원의 3/4이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의 연구조직을 비교해 보면, KOICA, Norad, AFD는 개발협력 실행기관에 속한 연구 부서로서, 기관의 전략 방향성과 기관의 수요에 부합한 연구를 해야하는 반면, JICA RI는 JICA의 전략에 따르되 국제 연구허브로서의 독립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IDOS 또한 BMZ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글로벌 싱크탱크를 목표로 조금씩 독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은 사업 연계 연구보다는 학술연구를 다수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FD는 기관 내 연구 본부이지만, 글로벌 싱크탱크의 비전을 갖고 있으며 개발협력 이행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며, 사업에 적용가능한 실용적인 지식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AFD, JICA, IDOS는 모두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리더십에 의해 연구조직이 부상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KOICA는 연구조직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교체에 따라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별 주요 연구 주제를 살펴보자면, KOICA는 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 개발효과성,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AFD는 기후, JICA RI는 평화 구축 및 인도적 지원, IDOS는 글로벌 공공재 마련과 공동의 과제해결을 위한 초국가 및 국제협력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협력 기관에서 연구조직의 역할은 거시적으로는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술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조직 내 학습을 통해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협력 기관의 연구조직은 기관의 목적과 전략 방향성에 따라 중점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한다. KOICA는 기관 설립부터 연구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증대에 따라 연구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며, 대외적으로는 증대되는 불확실성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및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직에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KOICA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DA연구센터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조직 내 공감할 수 있는 ODA연구센터만의 비전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ICA에서 연구를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조사 수준에서 내부 조직으로 머무르게 할 것인지, 타 연구기관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조직의 발전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KOICA의 개발협력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전략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KOICA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재 ODA연구센터 구조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며 KOICA의 역할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연구 인력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식기반을 강화하는 연구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기관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의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조직이라는 비전에 기존의 내부 역량 강화 기능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ODA연구센터가 개발협력 연구 분야의 플랫폼이자 국내 개발협력 학술생태계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은 결국 지속적으로 조직 내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며, 이를 발판 삼아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속에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의 지식과 전문성을 융합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KOICA에서 바라보는 연구의 의미를 다시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3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KOICA의 규모와 역할에 적합한 연구조직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The importance of R&D and knowledge sharing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lways been emphasized. R&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es research on all aspects of society-wide strategic policies and technologie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in recent years, its role has been expanding to include various research on global public goods issues such as rising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as well as agenda-sett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knowledge sharing and circulation, and future forecasting. Many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currently operate research department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s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agency, they can be considered the same in that they accumulate and share knowledge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alyze the future, and propose solutions. In addition, they are expanding their roles through activities such as drawing up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s, producing research outputs, and sharing knowledge in line with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each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R&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departmen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to suggest the func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KOICA's research department in the future.

The OECD (2015) defines R&D as creative activities that are systematically carried out to increase the amount of knowledge about people, cultures, and societies and to improve its application and utilization. Furthermore, R&D is generally an activity based on the exploration of objects, phenomena, and knowledge, and refers to systematic investigations that focus on the discovery, interpretation, correction, or reaffirmation of new or existing knowledge. In addition, it can also be said to analyze a phenomenon and propose alternatives to solve a problem by investing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field. It includes not only research on development cooperation itself, but also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knowledge in various categories that can be includ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actor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resulting products to solve problems. Moreover, the demand for research on analyzing and predicting future issues to prepare for uncertainty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global crisis is also increasing, and the role of research organizations with research expertise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Major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are equipped with research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nature of each organization to conduct various research require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At KOICA, research activities are centered on the ODA Research Center. The ODA Research Center aims to suggest KOICA's strategy and business direction by studying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main tasks include research on policies, projects, strategies, 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rela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aring knowledg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cations, and establis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In this study, we look specifically at Norad, which has a similar operating system to KOICA: AFD, which has research as the centerpiece of one of its offices; JICA RI, which is part of JICA but has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s; and IDOS, an independent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e. Norad, the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onducts research with three main objectives: to develop new knowledge, to strengthen research capacit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nd to systematically utilize research-based knowledge for policy making and use. In addition to Norad,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various forms of collaboration, such as through the Norwegian Research Counci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omote research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rance's AFD established a research department in 2002 and conducts research and knowledge shar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goods, and innovative financing instruments based on local and social contextual knowledge from its 80 years of experience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ing agency. Currently, the Office of Innovation, Research and Knowledge is responsible for research, strategy, evaluation, and education, and conduct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s every other year. Japan's JICA operates the Ogat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President of JICA, which conducts policy research on issues facing developing countries, shares Japan's development experience and expertise, and aims to strengthen Japan's intellectual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Germany,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conducts research activities through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called the 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IDOS is 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research, consulting, and training, with three-quarters of its staff in research positions.

Comparing the research organizations of each agency, KOICA, Norad, and AFD have research departments unde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ing agencies and are required to conduct research in line with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agency and the needs of the agency, while JICA RI follows JICA's strategy but sets an independent vision as an international research hub, and IDOS is also commissioned to conduct BMZ research but is gradually trying to become independent with the goal of becoming a global think tank. Therefore, these two organizations are characterized by conducting more academic research than business-related research. AFD has the research office within the agency, but it has the vision of a global think tank and is focused on producing practical knowledge that can be applied to business, taking advantage of its strengths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ing agency. AFD, JICA, and IDOS are all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ir research organizations emerged from leadership tha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KOICA, on the other hand, despite having a relatively

long history as a research organization, has experienced several ups and downs due to changes in management and still operates with a small staff and budget. Looking at the main research topics of each organization, KOICA mainly conducts research on development cooperation paradigms,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partnerships, while AFD focuses on climate, JICA RI on peacebuilding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DOS on inter-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for global public goods and solving common challenges.

The role of a research organization in a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can be seen at the macro level, identifying international trends and providing direction for the agency, and at the micro level,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rough organizational learning. Research organizatio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may vary in their focu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strategic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y basically produce research outputs. KOICA has been operating a research department since its establishment, but despite the fact that the role and importance of research has been increasing internally as the agency's budget and manpower have increased, and externally as society at large has become more aware of and invested in R&D due to growing uncertainty,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esearch department in terms of manpower and budget. In order to expand R&D at KOICA, it will be necessary to build on the strengths of the existing research organization and establish a vision for ODA Research center that resonates within the organization. Specific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KOICA intends to keep ODA Research Center as internal organization at the level of research to support business execution, or to position itself specializ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is competitive with other research institutions.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 organization can help build KOICA's development cooperation knowledge base through a variety of research activities, provide strategic and business direction, and help KOICA strengthen its voice and exp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ive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ODA Research Center, it would be reasonable to prioritize research that provides future directions and

serves as a platform for expanding KOICA's role, and gradually expand to research that strengthens the knowledge base as the research staff and scale expand. In the short term, focusing on existing internal capacity-building functions under the vision of a professional research organization that provides strategic direction and supports organizational learning will lay the foundation for the ODA Research Center to become a platfor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and a leading professional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domestic development cooperation academic ecosystem, and in the long term, a global think tank.

R&D is a systematic activity that continuously accumulates knowledge within an organization and creates new knowledge by utilizing it, and it can also be seen as a stepping stone to help organizations grow. At a time when the rapidly changing paradigm of development cooperation requires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the knowledge and expertise of various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meaning of research from KOICA's perspective. Although it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for the past 30 years, KOICA will need to make various changes to fulfill its role as a research organization appropriate to its size and role.

목 차

국문 요약	i
Executive Summary	iv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개발협력 연구개발 중요성 및 현황	4
1. 연구개발 정의 및 필요성	4
2. 개발협력 연구개발 현황	8
3. KOICA 연구개발	12
III. 타 공여기관 연구개발 사례 분석	19
1.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19
2. 프랑스 개발청(AFD)	27
3. 일본 국제협력기구 오가타 평화개발연구소(JICA)	39
4.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IDOS)	49
5. 소결	57
IV. 결론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안	61
참고문헌	68

부록	72
〈부록 1〉 KOICA ODA 연구센터 2021-2023년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72
〈부록 2〉 NORHED 참고자료	74
〈부록 3〉 NORHED II 포트폴리오	77
〈부록 4〉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보이스아이코드	84

표 목차

〈표 I-1〉 연구 체계	3
〈표 II-1〉 연구개발 정의	5
〈표 II-2〉 Frascati R&D 정의 변천사	6
〈표 II-3〉 개발협력 기관 내 연구 활동	10
〈표 II-4〉 KOICA 연구조직 변천사	13
〈표 II-5〉 KOICA ODA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	14
〈표 II-6〉 연구 중기전략(2021-2023) 체계도	16
〈표 II-7〉 연구과제 선정 절차	17
〈표 III-1〉 NORHED 사업문서에 제시된 요소별 프로젝트 성과(outcome)	24
〈표 III-2〉 연구 관련 조직체계 변동	29
〈표 III-3〉 혁신·연구·지식 본부 구성 (190명)	30
〈표 III-4〉 AFD 연구 달성목표별 실행과제	33
〈표 III-5〉 AFD 발간 보고서 종류	36
〈표 III-6〉 JICA RI의 연구 클러스터	42
〈표 III-7〉 JICA RI 발간 보고서 종류	46
〈표 III-8〉 IDOS 연구 프로그램별 클러스터	52
〈표 III-9〉 IDOS 연구 프로그램별 구성인원	53
〈표 III-10〉 IDOS 발간물 종류	55
〈표 III-11〉 5개 기관 연구 담당 부서 비교표	57
〈부표 2-1〉 NORHED II 사업 표준 지표	75
〈부표 2-2〉 NORHED I 포트폴리오 평가 업무	76

그림 목차

[그림 II-1] KOICA 조직도	15
[그림 III-1] Norad 조직도	21
[그림 III-2] JICA 통합 과정	39
[그림 III-3] JICA 오가타 연구소 조직도	41
[그림 III-4] JICA DSP	44
[그림 III-5] IDOS 대학원 과정 졸업생 첫 취업 현황	50
[그림 III-6] IDOS 조직도	51
[부록 그림 2-1] NORHED II 변화이론	7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모해 오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의 역할도 지속해서 변모하였다. 어떠한 특정 주제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기관의 전략 및 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는 이를 통해 분야, 조직, 기관,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것에 새로운 지식을 가미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제구조에 돌입하고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까지도 연구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발협력에서도 연구개발과 이에 기반한 지식공유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 경험, 정책 수립, 지식 등 비물질적인 자산도 자원과 같이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속에 불확실성 증대, 자원 부족, 효과성 제고 등의 여러 가지 변수는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에서 연구는 특정 분야를 목표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전략·정책 및 기술 등 모든 방면에서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협력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볼 때, 오늘날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계가 모호해졌는 지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 이슈 등 여전히 개발협력 형태와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수요가 있으며, 아젠다 도출, 사업 효과성 제고, 관련 지식공유 및 환류, 미래 예측 등 그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 내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도 연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 정보 및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개발협력에서 역량강화가 시급한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분야가 통계 및 데이터 수집과 관리이다.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제적 위기 및 국제분쟁 등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 위기가 점차 심화하며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는 분야별 경계를 넘는 복합적 사안으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은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인프라와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력 또는 복원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확대하거나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은 연구와 경험 등의 지식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도출하고 달성 방안을 제시하는 미래예측(Foresight) 조직을 구성하는 등, 불확실성이 극대화될수록 하나의 현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개발협력 기관은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협력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관 내 연구조직을 두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독립된 연구조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기도 하며, 조직의 구성에 따라 역할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조직의 규모나 업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관 차원에서 미래를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 현황분석,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략 수립 및 방향성 제시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위험 및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기획 및 평가 지원, 개발도상국의 연구 역량 강화, 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영성과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또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조직은 KOICA의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는 ODA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개발협력 관련 주제의 다양한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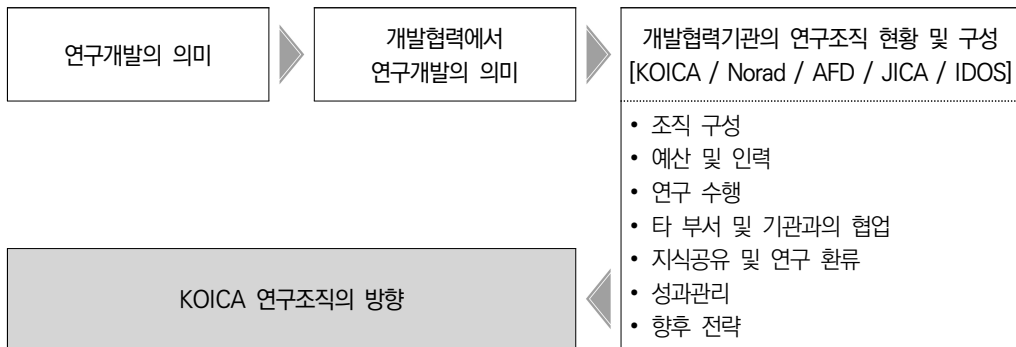
개발협력 기관에서의 연구조직은 개발협력 아젠다 도출, 연구 결과물 생산 및 지식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각 기관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여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KOICA의 연구는 소규모 자료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개발협력 포럼 및

컨퍼런스 운영에 초점을 두고 오랜 시간 운영되어 왔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 역할을 이어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타 개발협력 기관 연구조직의 구조, 역할, 연구 동향 등을 비교 분석하여 KOICA에 적용할 수 있는 특화점을 모색하고 향후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의미 및 중요성을 살펴보고,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바라보는 연구개발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연계하여, 다수의 개발협력 기관이 연구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특성 및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바, 개발협력 기관에서의 연구조직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OICA와 타 공여기관 연구조직의 설립 배경 및 역할 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향후 KOICA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표 I-1〉 연구 체계



자료 : 저자 작성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 KOICA 및 타 원조 기관의 공식 문서를 통한 문헌조사, 그리고 타 공여기관의 관계자 인터뷰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개발협력 연구개발 중요성 및 현황

1. 연구개발 정의 및 필요성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간단하게는 어떠한 것에 대한 분석 및 조사라고도 볼 수 있다. OECD Frascati 매뉴얼¹⁾(2015)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인간, 문화 및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양을 늘리고 이를 응용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에서는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독창적, 계획적 조사로, 개발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제조법, 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OECD,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에서는 연구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초연구를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응용연구를 지식의 응용 또는 상업적 활용을 목적하는 연구, 그리고 개발연구를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무언가의 개발을 목적하는 연구로 본다. <표 II-1>에서는 OECD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내린 연구개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정리하였다.

1) 연구개발조사 표준지침 - 1963년 OECD에서 최초로 개발된 연구개발 관련 통계 및 조사분석 활동의 국제적 가이드라인

2) 기재부 시사경제용어사전 R&D

〈표 II-1〉 연구개발 정의

OECD Frascati 매뉴얼	인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지식의 재고를 늘리고 사용 가능한 지식의 새로운 응용을 고안하기 위해 수행되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의미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R&D에 대해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 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의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제조법, 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시사경제용어사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 등	(기초연구)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한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임 (응용연구)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연구 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 활동임 (개발연구)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로 도출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 활동을 의미함
Springer ³⁾	연구 개발(R&D)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 활동의 실체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범주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지식을 늘리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함. 오늘날 혁신(Innovation) 활동은 연구개발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부터 제품의 (성공적인) 마케팅 또는 새로운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출시(R&D&I)에 이르는 모든 활동으로 구성됨
Cornell ⁴⁾	연구 및 개발(R&D)은 기초 및 응용을 포함한 모든 연구 활동과 비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개발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 기법에 대한 개인 교육과 관련된 활동도 포함함. 세부적으로는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해 보다 완전한 과학적 지식 또는 이해를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분석을 의미하며, 개발은 프로토타입 및 프로세스의 설계, 그리고 개발을 포함하여 유용한 재료, 장치, 시스템 또는 방법의 생산을 위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이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의미함
Britannica	대부분의 산업 생산 시스템, 신제품과 새로운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혁신은 연구개발에서 시작됨
Cambridge dictionary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비즈니스의 일부로, 연구는 특히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의미함

자료 : 저자 정리

3) 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978-94-007-0753-5_2482

4) law.cornell.edu/definitions/index.php?width=840&height=800&iframe=true&def_id=e21e1e2ed8ce9570ff7bfa0f616f0dde&term_occur=999&term_src=Title:2:Subtitle:A:Chapter:II:Part:200:Subpart:A:Subgrp:27:200.87

대표적으로 OECD의 연구개발조사 표준지침인 Frascati 매뉴얼의 정의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시대가 바뀌어도 연구개발이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구개발을 유형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963년 처음 발간된 이래 2015년까지 총 6번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76년 개정판에서는 연구개발의 범주가 과학·기술적 지식에서 인간·문화·사회적 지식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보고서에서는 신규성(novel), 창의성(creative), 불확실성(uncertain), 체계성(systematic), 이전 가능성 또는 재현 가능성(transferable and reproducible) 등의 총 다섯 가지 연구개발 기준을 제시하고, 점차 상호경계성이 모호해지는 혁신, 창작, 서비스 등과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등, 연구개발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표 II-2 참조).

〈표 II-2〉 Frascati R&D 정의 변천사

1963	Fundamental Research : Work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knowledge, without a specific practical application in view. Applied Research : The same, but with a specific practical aim in view. Development : The use of the results of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 directed to the introduction of useful materials, devices, products, systems, and processes, 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ones.
1970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may be defined as creative work undertaken on a systematic basis to increase the stock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to use this stock of knowledge to devise new applications.
1976, 1981, 1993, 2002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comprise creative work undertaken on a systematic basis in order to increase the stock of knowledge, including knowledge of man, culture and society, and the use of this stock of knowledge to devise new applications.
2015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R&D) comprise creative and systematic work undertaken in order to increase the stock of knowledge – including knowledge of humankind, culture and society – and to devise new applications of available knowledge.

※ 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 OECD 2015

이 외에도 수많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연구란 사물, 현상,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인 조사를 일컫는다. 또는 재무적,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어떠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기술 경쟁력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개발을 기술 진보를 이끄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⁵⁾. 21세기 들어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되며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⁶⁾과 함께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시금 대두되었다. 더욱이 최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요구되며, 지식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외에도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연구개발의 핵심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5)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6) 지식경영: 조직이 지니는 지적 자산뿐 아니라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영이론(포스코 경영 연구소 1998),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것을 전 조직으로 확산하며 그것을 다시 상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형상화 하는 것(Nonaka and Takeuchi 1999), 조직 내외부의 노하우, 경험, 판단을 활동적으로 레버리지 함으로서 가치를 더하거나 창조하는 접근(Ruggles 1998)

2. 개발협력 연구개발 현황

개발협력에서 연구가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빈곤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영국의 개발협력백서(2000)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가 선진국 내에서 선진국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며 빈곤층의 필요와 관련된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⁷⁾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연구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빈곤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연구에 투자할 상업적 인센티브는 거의 없기에, 정부 및 개발협력기관에서의 연구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에서 연구란 개발협력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개발협력 내 다양한 범주에서의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 연구는 학문적 연구,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협력 정책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발협력 분야별, 국가별, 지역별, 주체별 등으로도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개발협력 연구는 학술적·정책적 의미도 크게 있겠으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분석 연구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 도전과제는 기술 응용, 과학기술 분야 등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연구를 특히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적·기술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신기술 개발 또는 기술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수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력은 곧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도 인식되기에,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동 연구 및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 더욱 요구되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 다루어지던 개발도상국 대상의 이슈는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까지 포함

7) 예를 들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90%가 전체 보건 연구의 10% 미만에서 다루어짐(UK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0, 43)

하게 되면서, 개발협력 연구 및 연구 역량 강화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는 글로벌 이슈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기술 이전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과학기술 협력으로 확대로 나타나며(OECD 2011), 개발도상국은 자연 연구 현장부터 첨단 기술 제품의 미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지식, 자원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지되고 있다.

나아가 초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하는 것 또한 개발협력 연구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위기 속에, 미래 이슈를 지속해서 수집 및 분석하고 예측을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협력 연구는 정책적 방향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과거의 현상 분석을 기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래예측 접근(foresight approach)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Rhydderch 2016).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 지형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도출,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분야는 특히나 불확실성이 많으며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바, 과거의 지식을 축적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ODA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한다고 할 때, 미래 이슈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게 된다. Rhydderch(2016)에 의하면, 미래예측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이다.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집단지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를 형성할 요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집단 지식 풀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이란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한데 모아 전략적 정책 결정 및 계획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예측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및 글로벌 위기 속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조직의 역할이 더불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임현 외(2022)는 특히 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 역량이 강조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프랑스 개발협력기관인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는 연구를 통한 지식생산(knowledge production) 및 공유를 연속되는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finance) 및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보완하는 주요 수단이자 공여 활동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OECD는 다양한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전문 지식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전략적 예측의 영향력을 높이고 나아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2013년 Strategic Foresight Unit을 결성하였다. 유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관찰되는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은 기관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특히 기존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네트워킹 및 공유/확산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미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미래 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렇듯 개발협력 대내외적으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개발협력 기관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다. 기관 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기도 한다⁸⁾. 연구조직의 연구 활동은 각각 기관 운영 관점과 개발협력 사업 수행 관점에서 크게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미래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기반 마련은 기관 운영 측면에서 경영성과 제고를, 개발협력 사업 측면에서는 역량강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래 이슈 대응은 기관 운영 측면에서 정책 및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개발협력 측면에서는 사업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3〉 개발협력 기관 내 연구 활동

	지식기반 마련	미래 이슈 대응
기관 운영	경영 성과 제고	정책·전략 방향성 제시
개발협력 사업	역량 강화 제고	사업 방향성 제시

자료 : 저자 작성

주요 공여기관의 연구조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인 Norad는 새로운 지식의 개발,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의 연구 역량 강화, 연구 기반 지식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정책 입안 및 활용 등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Norad 외에도 노르웨이 연구 의회(Norwegian Research Council)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협력

8) 연구조직이 내부 조직인지 외부의 독립된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 성과의 전문성 및 효과성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음. 내부 조직일 경우 목표를 선택하고 기관의 재원 및 목적을 고려하고 필요 및 수요에 맞추어 구체적인 연구 목표 설정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발생가능한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함. 반면, 외부 조직일 경우 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기관 내부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연구의 주제 및 성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음. 단,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 기관에서의 연구조직의 위치보다는 역할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함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AFD는 2002년 연구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개발협력 실행기관으로서 80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지역적·사회적 맥락에 따른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 및 공공재, 혁신 재원 수단에 관한 연구 및 지식공유를 하고 있다. 현재 혁신연구지식본부(Innovation, Research and Knowledge)가 연구, 전략, 평가, 교육(AFD Campus)의 기능을 담당하며, 격년으로 국제 연구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JICA는 이사장 직속부서로 오가타 연구소(Ogata Research Institute)를 갖추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및 일본의 개발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⁹⁾라는 독립된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IDOS는 연구, 컨설팅 및 교육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 직원의 3/4이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직명에 연구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연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USAID의 경우 정책, 계획 및 학습 부처(Bureau for Policy, Planning, and Learning, PPL)가 있으며,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식기반 마련보다는 미래 이슈 대응에 초점을 두고 기관과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에 목적을 두고 연구의 일부 기능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위스 및 스웨덴 등 다수의 개발협력기관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현재 영향력 있는 글로벌 싱크탱크 상위 10위안에 속함

3. KOICA 연구개발

KOICA에서는 ODA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를 연구하여 KOICA의 전략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정책, 사업, 전략, 또는 협력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관련된 연구,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학술회의 및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공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개발협력 사업 수행기관 내 속한 소규모 연구조직으로, 운영 및 예산 집행 방식 등에 있어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편, KOICA의 연구조직은 나름의 오래된 역사가 있다. 전신인 해외개발공사이던 시절부터 KOICA 설립에도 존재해 왔다. 규모, 예산, 및 인력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연구조직으로써 개발협력 분야 자료 조사 및 연구를 이끌어 왔다. 그만큼 KOICA에서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KOICA 내 연구조직은 대부분 이사 직속부서로 존재하였으나, 이사장 산하 독립조직으로 있기도 하였다. 연구자료 또는 연구조사라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설립 당시에는 연구보다는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통계 관리도 이에 포함된다. 2000년대에는 기관의 정책전략 부서와 밀접하게 협업하며, 연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준비와 ODA 기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조직을 운영하였다. 2000년대 말부터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ODA 정책연구, 지역연구 및 분야별 연구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연구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즉, 지식기반을 구축하며 ODA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2010년 한국의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KOICA는 ODA 전략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원 설립을 시도한 바 있다. 신규 DAC 회원국으로서 ODA 예산 증대 및 국제개발협력 법안 제정 등과 함께 ODA 정책, 실행 전략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에는 5개년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연구를 통한 ODA 정책의 질 및 KOICA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목표하였으며, 통계전문관 제도를 신설하여 개발협력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연구를 통해 ODA 백서 발간에 앞서 관련 제도 및 정책적 기반을 분석하여 백서의 양식과 수립 절차를 제시하였다.

〈표 II-4〉 KOICA 연구조직 변천사

91년	이사 직속 연구자료국(연구원실, 연구기획과, 연구자료과)
94년	이사 직속 연구조사부(연구기획과, 조사통계과, 전산과, 이주관리과)
96년	이사 직속 연구조사실(연구조사과, 전산통계과)
98년	이사 직속 기획총무본부 內 연구실
99년	이사 직속 기획예산팀 下 협력정책실
00년	이사 직속 협력정책팀(독립)
01년	이사 직속 협력정책팀(하위부서로 IT협력팀 신설 이후 독립)
03년	이사 직속 협력정책반
05년	이사 산하 별도 독립부서 협력정책반(2월) → 정책연구실(10월)
06년	이사장 산하 독립조직 정책연구실(3월) → 이사장 직속부서 (6월)
11년	이사 직속 국제개발협력센터 內 ODA연구팀
13년	이사 직속 전략기획이사 산하 ODA연구팀
15년	이사 직속 연구개발팀
17년	이사장 산하 독립조직 KOICA 아카데미 內 연구팀
18년	이사장 산하 독립조직 ODA연구정보센터
20년	이사 직속 ODA연구정보센터
21년	이사 직속 ODA연구센터

자료 : 내부 문서

2015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¹⁰⁾ 체제가 종료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새롭게 채택되었다. ODA 연구센터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5년부터는 SDGs 대한 국내외 목표와 방향 논의, KOICA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 및 사업 방향 등 SDGs 초기 이행 체제 구축 준비 및 내재화 연구 등 개발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주제인 개발재원과 관련하여 KOICA ODA의 향후 역할과 변화 대응, 임팩트 투자 등의 개발 자원 활용 및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2016년 KOICA는 ODA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국내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도 함께 부여되었다. 이에 ODA연구센터는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관한 연구 외에도 원조 투명성, 인권 경영, 고용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였다. 또한 신남방, 신북방, 한-미 협력, 정부-시민 사회 협력 등 ODA 관련 정부 정책 이행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 ODA 정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10) 반빈곤 운동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 - 8가지 목표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 - 15년간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개발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음 -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위기와 혼란은 역으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은 국제 사회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개발 도상국에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ODA연구센터 또한 SDGs 이행 방안, 자원 마련 등 기존의 개발협력 연구 외에도 팬데믹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 체계 연구, 팬데믹으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ICT 및 디지털화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간의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팬데믹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며, 국경 봉쇄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개발 도상국에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예상하여 개발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통합적 접근, 능동적 적응 사업관리, 신흥공여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I-5〉 KOICA ODA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

	연구 분야
2011~2015	• 경제구조 전환과 개발협력 •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 개발효과성 • 국제사회의 개발경험과 개발협력 • ODA 정책·행정 이슈
2015~2017	• 원조정책 및 메커니즘 • 개발자원 • 성과중심관리 • Post-2015 체제
2018~2020	• ODA 정책 및 메커니즘 • 혁신적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 KOICA 사업효과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2021~2023	• 新개발협력 패러다임 • 개발성과 및 효과성 - 연구파트너십 및 역량강화

자료 : 내부 문서

현재 ODA연구센터는 사업전략·파트너십 본부에 하나의 센터로 있다. 사업전략·파트너십 본부는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략 수립, 기획 및 운영 총괄을 담당하며, 그 외 기후·환경·감염병 대응, 민관협력, 국제기구협력사업 및 연구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연구센터 내에는 연구 외에도 ODA 교육과 관련된 사업¹¹⁾을 담당하는 ODA 교육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단, ODA 연구센터는 연구를, ODA 교육팀은 교육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업무 간 직접적인 연계성이 미미하다.

[그림 II-1] KOICA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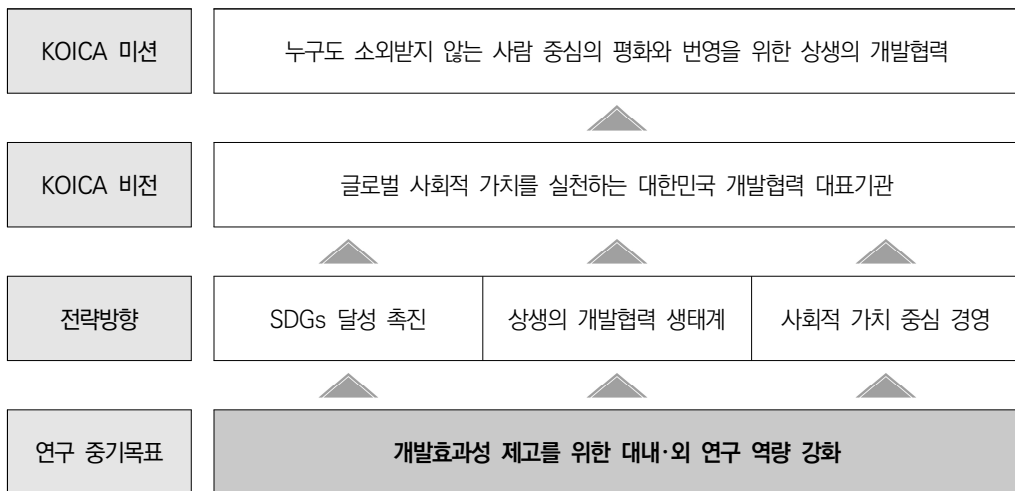
자료 : KOICA 2023

ODA연구센터는 연구 주무 부서로 KOICA의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ODA연구센터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수행하며, 사업 및 기관의 전략적 방향 등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사업 및 기타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 ODA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관련 부서의 사업 및 전략으로 환류된다. 연구 외에도 타 부서 요청에 따라 자료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문가와의 가교역할을 한다.

11) ODA 교육(미래세대교육, 세계시민교육, K-MOOC 등), ODA 자격시험, 상설전시관 전시 및 교육, 국제 개발협력센터 및 대학교 이해증진사업 운영

ODA연구센터는 2023년 기준 10억 원 정도의 연구 업무 예산 규모로, 8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연구 및 연구 용역을 통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주요 업무로 하며, 지식 확산을 위해 개발협력포럼 및 국제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ODA연구센터의 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4인 미만으로, 연구원당 2-3개 정도의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KOICA의 관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및 연구 중기전략을 함께 고려한다.

〈표 II-6〉 연구 중기전략(2021-2023) 체계도



자료 : ODA연구정보센터 2020

ODA연구센터의 연구는 간혹 외부와의 계약으로 다년간 연구가 실시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년도 연구로 이루어진다. 연간 연구는 전년도 말 연구 수요조사부터 시작된다. KOICA 내부, 외교부, 기타 기관 또는 대학교 등에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수집하고, 연구 계획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최종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는 주제의 특성에 따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타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용역을 통해 수행된다. 수행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간이 된다. 연구 결과물은 연구보고서, 개발과 이슈, 정책브리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표 II-7〉 연구과제 선정 절차

구분	내용
1단계	• 수요 생성 및 접수
2단계	• 과제 제안서 검토 (내부검토) - 과제 타당성 검토, 유사 수요 통합 등 - 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 연구과제 후보(안) 선정
3단계	• 연구과제 후보(안) 의견 수렴 - 후보 과제에 대한 단내외 의견 접수 - 과제 조정(유사 주제 통합 등)
4단계	•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과제 최종(안) 상정
5단계	• 연구과제 및 계획 확정

자료 : 내부 문서

한편, ODA연구센터는 연구보고서 생산 및 발간 외에도 연구와 연관된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연구 결과 혹은 시의성 있는 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지식을 KOICA 내·외부로 공유하는 DISKO(Development Issue Seminar in KOICA), 개발협력 포럼 및 서울 ODA 국제회의의 등이 있다. DISKO는 KOICA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또는 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이다. 개발협력포럼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지속되고 있는 대국민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이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서울 ODA 국제회의의 경우, 한국에서 개발협력 분야 컨퍼런스 중 가장 큰 행사로,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발협력의 주요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지’라는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개발협력 학계의 발전을 지원한다. 2005년 처음 발간된 국제개발협력지는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학술지 대비 가장 긴 발간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¹²⁾. 첫 발간 당시에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시의성 있는 지식 제공에 초점을 두었으며, 점진적으로 학술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현재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ODA 관련 이슈 및 개발협력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 제언을 담은 순수 학술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대국민 참여와 지식공유의 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KOICA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KOICA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KOICA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들을 관리 보관하며, 이를 열람 가능한 창구로써 도서관¹³⁾

12) 국제개발협력연구 2009년 창간, 지역발전연구 2012년 창간

13) 2011년부터 운영, 현재 4만 9천여 권 소장중

을 운영하고 있다.

ODA연구센터의 타 부서와의 협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에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컨퍼런스, 개발협력포럼, DISKO, 국제개발협력지, 연보 등과 같이 지식공유 과정에 있어 타 부서와의 협력이 일반적이다. 전략 및 사업 부서와는 연구 결과 및 전문가 네트워크 공유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연구 결과 및 지식공유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홍보실의 협력이 필요하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은 학술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구 용역 발주, 또는 학술대회 참석 및 평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DA연구센터의 업무를 종합해보면, 연구보고서 생산, 단내 지식 공유활동, 개발협력 학계 저변확대 차원에서 외부 지식공유 활동, 학술 활동 지원 및 학술지 운영, 연보 발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관리는 각각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와 ODA연구센터의 성과관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연구는 진행 과정에 따라 보고회 및 심사를 거치며, 심사에서 일정 점수를 득하지 못할 시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는다. ODA연구센터에 대한 성과관리는 기관의 중장기 경영 목표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편람에 따라 진행된다.

KOICA에서 ODA연구센터는 조직 내 다양한 위치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KOICA 설립 이래 연구 업무가 없었던 적은 없다. 국제개발협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DAC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ODA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DAC 가입 이후 확대되는 KOICA의 역할에 따라 관련 법안, 정책 및 실행 전략 마련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SDGs 채택, KOICA의 준정부기관 편입, 코로나 팬데믹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국내 ODA 정책을 선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한편, 최근의 유례없는 위기 속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은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역량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이에 ODA연구센터는 기존의 연구 업무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KOICA는 ODA 예산 증대와 함께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 접근법 및 개발효과성 등에 대해 늘어나는 연구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타 공여기관 연구개발 사례 분석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공여기관은 KOICA와 마찬가지로 연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르지만, 기관 및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Norad, 프랑스의 AFD, 일본의 JICA, 독일의 BMZ/IDOS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KOICA에서의 연구와 그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Norad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인력 규모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KOICA와 유사한 점이 있다. AFD는 지난 10년간 연구 부서의 역할이 크게 성장하면서 현재 하나의 본부의 중심점이 되었다. 또한 JICA의 연구 부서인 RI는 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며, JICA의 전략정책 방향성 수립 외에도 학술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 학술적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는 조금은 독특한 사례로 Norad, AFD, JICA와는 달리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수행, 평가 및 연구가 모두 독립된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독일의 개발협력 주무 부처인 BMZ와 각 기관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사례는 각각의 기관 내 전략문서를 비롯한 내부 자료 분석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KOICA 연구 부서의 발전 방향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Norad는 노르웨이 ODA 사업 집행기관으로 외교부 산하에 있으며, 2019년 대대적인 개편으로 권한 및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노르웨이 ODA의 약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Norad에는 연구만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는 없으며, 기관 차원의 연구전략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노르웨이 전체 교육·연구 분야 전략이 있으며, Norad는 이 전략에 따라 연구 및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따른다. 지식부서(Department for Knowledge)와 인간개발부서(Department for Human Development)의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Sec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일부 연구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orad는 직접적인 연구 수행보다는 전략 방향성 수립에 필요한 조사분석과 연구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연구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담당 조직 구성 및 배경

Norad에서는 개편과 함께 새롭게 수립된 사업 및 전략 방향성 제시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 방향성에 따라 무상원조 협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외부와의 전문 지식공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1년 지식 부문(knowledge section)과 통계분석 부문(statistics and analysis section)을 포함하는, 즉, 기록, 데이터, 통계,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지식부서를 신설하였다. 특히 지식부서¹⁴⁾ 내에서도 지식 부문은 지식/데이터 관련 정책, 규정, 저장 방식 등의 Norad 내부 지식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통계 부문은 기존의 Norad 통계관리 업무를 확대한 것으로, 통계 보고 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을 주요 업무로 추가하여 기관 내 지식 및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고자 한다(Nygard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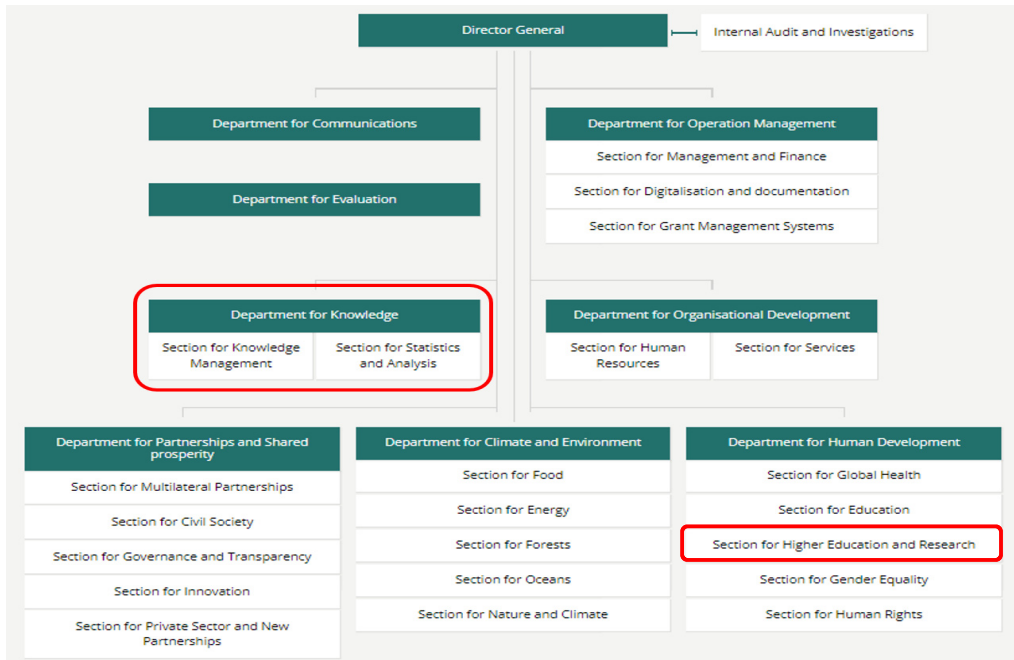
지식부서가 기관 내 축적된 지식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면,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은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노르웨이 대학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복합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공모 사업은 고등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Norwegian Programme for Capacity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 NORHED)¹⁵⁾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지식생산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별히 Norad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 고등교육 및 연구 환경을 분석한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연구자 수와 연구 생산물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Sjoveian 2023).

Norad는 고등교육 및 연구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는 국가의 지적 자원, 유능한 인력, 비전 있는 지도자, 양성평등, 인권 및 민주주의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Sjoveian 2023, Norad 2020c). 지원의 71% 정도는 장학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밖에 커리큘럼 개발, 소규모 인프라 지원, 교육 및 연구기관 품질 보증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와 함께 지역 내 총 17개의 연구기관(research council)을 지원하고 있다(Sjoveian 2023).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지식 및 파트너십을 적극 공유하여 Norad 조직 내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는 것까지가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14) 연구/지식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식/데이터를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15) NORHED는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 역량개발에 관한 Norad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2013-2019년 NORHED I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NORHED II(2021-2026년)를 진행 중임

[그림 III-1] Norad 조직도



자료 : Norad 2023

2) 인력 및 예산

지식부서는 2023년 기준 지식관리 담당 5명, 통계분석 담당 9명, 도서관 관리 1명, 부서장 및 비서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학부 및 대학원생 인턴들이 있다. 기관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에 속하며, 부서원 대부분이 경제·사회과학 분야 전공자로, 개발협력 실무자, 연구 경력자 및 타 기관 경력자이다(Nygard 2023). 연구를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지식부서 전체의 예산은 지원 부서의 10% 정도 수준으로, 전체 ODA에서는 매우 적은 비중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Nygard 2023).

고등교육 및 연구부문은 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명은 부서의 가장 큰 프로그램인 NORHED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연구기관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 구성원 각자가 담당 분야에 따라 NORHED 사업을 분배하여 맡고 있지만, 모든 사업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어져 관리되고 있다(Sjoveian 2023). 고등교육 및 연구부문의 연간 예산은 3억 노르웨이 크로네(NOK), 즉 한화로 약 373억 3천만 원¹⁶⁾이며, 고등교육, 국제보건, 해양, 기후 및 환경, 젠더나 오픈액세스와 같은 범분야

이슈 등 고등교육 및 연구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 중 가장 집행이 큰 분야는 국제보건이다. 부서 예산의 40%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 연구기관에 약정¹⁷⁾을 통해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 예산은 NORHED 프로그램에 사용된다(Sjoveian 2023).

3) 연구 수행과 활용

연구는 지식부서 내 통계 부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타 부서에서도 원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통계 부문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만, 연구원당 연간 1개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부문은 직접 연구보다는 통계 데이터 관리 또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시 필요한 사전 조사 등의 기관 내 컨설팅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신설된 부서인 만큼, 기관의 필요에 의한 데이터 기반의 짧은 보고서 작성과 체계화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과제 발굴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Norad 내 연구진은 연구자이기보다는 분석가(analyst) 이미지가 더 강하다.

연구는 내부 및 외교부 수요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수행한다. Norad 내부에서는 분석계획(analysis plan)¹⁸⁾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하며, 노르웨이 외교부는 파트너십과 개발 분석 부문(Section for partnership and development analysis)을 통해 필요시 연구를 요청한다. 이 외에도 타 원조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 작성되는 보고서도 있다¹⁹⁾. 긴급한 연구 수요의 경우 주로 외부에 의뢰하는데, 지난해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수요가 늘어나면서 타 연구 기관과의 협력이 증가하였다.

현재의 지식부서는 지식과 학습 네트워크(knowledge and learning network)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높이하고자 하며, 관련하여 타 부서와의 협력도 이루어진다. 데이터 및 사업성과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만큼, Norad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디지털화와의 연관성이 높다. 이에 동부서는 디지털·문서화 부문(Section for digitalization and documentation)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또한 사업 부서와는 주제별²⁰⁾ 정책 책임자(policy director)와의 협업을

16) 2023년 9월 12일 환율 기준

17) 6~8개의 약정

18) Norad는 분석계획에 따라 회의 및 토론 등을 진행하며 지식공유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유사한 사업 사례, NGO의 사업 트렌드, 이산화탄소 배출과 GDP 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주제로 발전시키거나 사업 방향성을 수정하기도 함

19) Future of Aid 관련 개발협력 트렌드 (개발재원, 기후변화, 넥서스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업·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Norad 내부 연구 수요를 파악하는데 주요 소통 채널로 활용되는 분석계획 또한 부문 및 부서 간의 회의 및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를 최대화하여 협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은 주로 노르웨이 연구회(Research Council of Norway)²¹⁾와 이루어진다. 노르웨이 연구회에서는 외교부의 ODA 예산으로 연구사업을 운영하며²²⁾, Norad의 지식부서는 관련하여 자문 컨설팅(main thematic advisor) 역할을 한다.

연구 결과 등의 지식공유는 소규모 회의 및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 개발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세미나 및 컨퍼런스는 지식 부서가 개최하기보다는,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지식부서는 주로 타 부서 및 부문에서 개최하는 성과 공유회 및 세미나 등에 공동으로 참석하여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형태로 협업한다. Norad에서도 지식공유 차원에서 매년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다만,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부서는 홍보부서(Communications)이며²³⁾, 지식부서는 다른 부서와 함께 컨퍼런스 관련 아이디어 및 주제를 제시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협업한다.

4) 연구 공모 사업의 수행과 활용

연구 공모 사업이 속한 NORHED는 협력국의 고등교육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더 포괄적인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구성한다(Norad 2020c). 현재 진행 중인 NORHED II는 노르웨이와 협력국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6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프로젝트는 3년 또는 6년의 지원 약정(총 지원금액 1천만~2천만 NOK)을 체결하여 진행되고 있다(Norad 2020a)²⁴⁾. 사업 선정은 공모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노르웨이 대학²⁵⁾이 주체가 되어 개발 대상국의 대학²⁶⁾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NORHED 서브 프로그램인 주제 관련 사업을 구상하여

20) Norad는 환경, 인간개발 등 주제(theme) 위주로 사업조직이 구성됨. 특히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가 현 정부의 우선순위임

21) 노르웨이 연구회: 노르웨이 전체 연구 공모 사업을 관리

22) 과거에는 Norad에서 직접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현재는 외교부에서 배정

23) Norad는 컨퍼런스가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기관을 외부에 홍보하는 행사이기에, 외부 인사 및 기자단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봄

24) 제안서 제출 시 지원 금액을 1천만~2천만 NOK(한화 기준 약 12억 3,750만원~24억 7500만원)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3년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 대략 1천만 NOK 선에서 지원함(Norad 2020a). NORHED II의 총 지원가능 예산은 11억 NOK이었음

25) 노르웨이 교육인증기관(Norwegian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NOKUT)의 인증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함(Norad 2020a)

26)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 당국의 인증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함(Norad 2020a)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NORHED 서브 프로그램은 총 6개로 1) 교육 및 교육자 훈련, 2) 보건, 3)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4) 인문학 및 사회과학, 6) 에너지이다.

제안서에는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성과모형(results framework)을 포함해야 하는데, <표 III-1>에서 제시된 프로젝트 성과(outcome) 6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거나,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Norad 2020c).

<표 III-1> NORHED 사업문서에 제시된 요소별 프로젝트 성과(outcome)

프로그램과 방법론	향상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방법론의 질
체계(system)	교육 및 연구 체계 및 제도 개선
인재	직원 및 학생의 역량 강화
젠더와 평등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향상된 양성평등, 소수 그룹의 포함
인프라	교육 및 연구기관의 소규모 인프라 및 기자재의 향상된 품질
성과공유(Outreach)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 증가와 지식공유의 증가

자료 : Norad 2020c, 9

제안서 심사는 주제별로 노르웨이 학계 및 연구기관, 유럽 타 지역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개도국 대학 소속 인원들로 구성된 독립전문가위원회(Independent Review Committee, IRC)를 통해 실시한다(Sjoveian 2023, Norad 2020c). 사업은 관련성(relevance), 기획 품질, 파트너십과 이행으로 구분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최종적으로 지역 연관성에 따라 노르웨이 대사관과의 면담, 주제 연관성에 따라 Norad 기술부서의 검토를 통해 선정된다(Norad 2020e).

NORHED II에서는 총 199개의 제출 제안서 중 최종적으로 60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²⁷⁾ 선정된 사업에 대해 Norad는 11개의 노르웨이 대학과 약정을 맺어 사업예산을 지원한다(Norad 2020e). NORHED I 당시에는 사업별로 개도국 대학까지 모두 포함한 참여 대학과 각각 약정을 따로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Norad 내 관리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발생하였다. 너무 많은 약정체결로 인해 재무 관리에만 업무가 쏠려 사업 자체에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고 한다(Sjoveian 2023). 이에 NORHED II에서는 노르웨이 대학과만 약정을 체결하고, 노르웨이 대학이 주체가 되어 개도국 대학과 직접 약정을 맺게 하여 노르웨이 대학교로 개도국 대학과의 파트너십과 업무분장을 이임하였다(Sjoveian 2023).

27) 부록 3. NORHED II 포트폴리오 참고

Norad는 연구 수행 기간 동안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자 간의 연결을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 고등교육 및 연구부문은 2022년 대부분 연구자인 60개 NORHED 프로젝트의 리더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고,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해서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여 지식공유 및 공통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프로젝트 리더와 Norad 부서 및 부문장이 모여 서로를 연결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5) 성과평가

한편, Norad의 평가는 노르웨이 전체 ODA 사업을 평가하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Norad의 평가는 사업의 성과만을 평가하며, 별도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공시된 각 부서별 평가 지표 및 관리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Norad 기관전략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부 보고를 실시하며, 매년 연말에 각 부문(section)들이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한다. 이는 성과관리를 외부의 평가 관점이 아닌 내부의 관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Sjoveian 2023).

NORHED에 속한 연구 사업은 Norad의 타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진행보고서, 중간보고서, 재정정보고서, 사업지 방문, 검토 및 평가 등을 통해 각각의 사업이 관리된다. 노르웨이 대학은 매년 성과모형에 입각한 연차보고서와 사업 종료 시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Norad 담당자는 공모 제안서에서 계획한 목적 및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검토한다.²⁸⁾ 또한, 모든 NORHED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된 표준지표의 데이터, 사업 수행기관 및 Norad 담당자와의 면담, 현지 조사 바탕으로 NORHED 전체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다.²⁹⁾

6) 향후 방향성

Norad의 사업 부서는 평화·번영, 기후·환경, 인간·개발 등의 주제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조직구조도 이에 따라 개편하였다. 파트너 국가 중심의 양자원조 사업은 감소하고 대신 주제별 다자원조 사업은 확대되었다. 또한 Norad의 예산은 개편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Norad 내 사업 효과성 및 효율적인 ODA 예산 집행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증거기반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

28) 박수영, 안미선, 고요한. 2023. 무상원조 운영체계 비교분석. 한국국제협력단, 64-69 참조

29) NORHED II 표준지표 및 포트폴리오 평가업무는 부록 2. NORHED 참고자료 참조

부서의 신설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협력 분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지식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지식 활용을 위해 기관 내 체계적인 지식관리 강화를 제일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원조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와의 접목과 이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외교부 및 Norad 정책·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Norad의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은 연구를 단순히 결과물인 보고서를 발간하며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사업들과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결과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joveian 2023). 따라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통한 연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Norad는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NORHED 사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 관점에서 2-3개 협력국을 묶어 타 공여기관과의 조율과 협력국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야별 고등교육 및 연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때 기존의 대학, 연구의회, 연구소 등과의 협업 외에도 교육 품질 보증 기관, 출판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및 연구 발전에 전방위적(holistic approach)으로 접근하고자 한다(Sjoveian 2023).

2. 프랑스 개발청(AFD)

AFD는 프랑스 유무상 통합 개발협력기관으로 협력국 정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AFD의 자회사이자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인 Proparco를 통해 협력국 민간기업에 개발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에는 기술협력 실시 기관인 Expertise France가 AFD 그룹에 병합됨으로써 AFD는 협력국에 종합적인 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병을 통해 Expertise France의 기술 역량과 전문성을 흡수함으로써 AFD 내 연구 및 지식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AFD 2019).

AFD는 ‘연구, 혁신 및 지식 전략문서(2019)’에서 AFD 활동의 두 개의 축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financial production)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지식생산(intellectual production)을 명시하고 있다. AFD는 연구를 ‘지식생산’으로 칭함으로써 중요한 생산활동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FD에서의 지식생산은 공여 활동의 일부이며, 공공 정책의 수립 및 모범 사례 전파에 기여하며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써 활용된다(AFD 2014).

현 AFD 연구혁신지식본부장인 Thomas Melonio에 따르면, AFD 내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데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 9년간 CEO로 재임한 Jean-Michel Severino의 역할이 지대했다(2023). 그는 AFD 부임 이전 세계은행 부총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이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은행(financing bank)이자 정책 은행(policy bank)로 기능하는 것에 착안하여 AFD 내 지식생산 활동, 즉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집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다만, 세계은행, 유엔, OECD 등 다자기구에서의 지식생산은 국제적인 합의를 끌어내고 규범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담론에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면, AFD는 프로젝트 지원 및 이행기관으로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AFD 2014).

1) 연구 활동 및 담당 조직의 변천

AFD에서 지식생산 활동은 1963년 설립된 경제금융연구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and Banking Studies, CEFEB), 즉 현재의 AFD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CEFEB가 협력국에 대한 재정지원, 차관, 채권발행, 기술 자문 등과 더불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 AFD 지식생산 활동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이후 1980년대에 프로젝트의 사후평가와 협력국에 대한 거시경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기관 내 개발협력 지식이 축적되면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리더십에 의해 지식생산이 AFD의 중점 활동이 되면서, 6-7명 규모의 연구 부서(Research Department)를 신설하고, 축적된 분야별 전략 및 평가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 연구협력에도 참여하며, 2003년 첫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AFD의 전략과 사업 운영 등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국가리스크분석 및 거시경제분석 결과물의 일부가 발간되며 외부로의 지식 확산에도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AFD 내 지식생산 활동이 정착되면서, 연구 부서뿐만 아니라 전략 부서, 재무 및 사업 부서도 지식생산 활동을 위한 부서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업무 관련 연구 및 연구 파트너십을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전략 또한 이 시기에 처음 세워졌다. 2014년 'AFD에서의 지식생산(Knowledge Production at AFD)'이라는 제목의 연구전략이 처음 수립되었으며, 2019년에 기존 전략을 대체하는 '2019-2022 전략-연구, 혁신 및 지식'이 수립되었다.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관련 조직체계 변화는 <표 III-2>와 같다. 2013년 3월 기준 조직도를 살펴보면, 연구 부서는 전략(Strategic) 본부 산하에 위치하며, 경제 및 사회연구, 지식경영 지원, 평가 및 추적, 거시경제 및 국가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는 유닛으로 구분된다. 또한, 전략 및 예측 부서, CEFEB, 글로벌환경을 위한 프랑스 기금 사무국(Secretariat of the French facility for global environment, FEEM)이 전략 본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다. 2022년 9월 기준 조직도상에서는 혁신·연구·지식(Innovation, Research and Knowledge, ISR) 본부가 기존 전략 본부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동시에, 재편된 본부 명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및 지식과 함께 혁신이 큰 축으로 포함되었다.

〈표 III-2〉 연구 관련 조직체계 변동

시기	2013년 3월 기준	2022년 9월 기준
본부	전략 본부	혁신·연구·지식 본부
산하 부서	연구 부서	- 편집 및 출판 - 혁신 유닛 - FEEM - 개발혁신기금(FID)
	- 경제 및 사회 연구 - 지식경영 지원 - 평가 및 추적 - 거시경제 및 국가리스크 분석	
	전략 및 예측 부서	경제평가 및 공공정책 부서
	- 전략 기획 - 조직 및 예측 - 위기 및 갈등	- GEMMES 모델링
	CEFEB	전략, 예측 및 공공관계 부서
	- 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 트레이닝	- 지속개발 분석 및 오피니언 - 전사전략 - 모니터링, 예측 및 기관 - 기업사회적책임, 책무성 및 투명성
	글로벌 환경 기금 사무국(FEEM)	평가 및 지식축적부서
		- 데이터-영향평가 - 평가 및 추적 지속가능개발 캠퍼스 (AFD Campus)

자료 : AFD 2013, 2022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이에 2,000년대 초 6-7명 규모에 그쳤던 연구 부서는 2023년 기준 19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본부로 성장하였다(Melonio 2023). 혁신과 전략, 평가, 교육의 기능이 연구 본부로 모두 통합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연구와 지식이 있다는 것에 AFD 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그 결과 AFD의 지식생산 활동도 활발해졌는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450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AFD 2014), 현재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준으로는 1,000건 이상의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연평균 80건의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AFD 2023).

2) 혁신·연구·지식 본부 구성과 역할

혁신·연구·지식 본부는 개발협력 분야의 경제·사회 연구와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업무 및 방향성을 설정하는 전략 기능을 수행하며,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기관 전체에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AFD 지원 프로젝트의 평가 기능, 협력국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또한 수행한다. 혁신·연구·지식 본부 내 각 부서 및 유닛이 담당하는 업무는 대략 <표 Ⅲ-3>과 같다.

<표 Ⅲ-3> 혁신·연구·지식 본부 구성 (190명)

부서	유닛	업무
	편집 및 출판	
	혁신	복합개발위기 대응 위한 조직 개선, 툴, 의사결정구조 개발
	FEEM	글로벌 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 양자기금 운영
	FID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의장: 에스테르 뒤플로)
경제평가 및 공공정책	국가리스크 평가 (11명)	지역 리스크 및 거시경제 이슈 분석
	GEMMES 모델링	재정·통화 리스크와 환경간 상호작용 분석 시나리오 제시
전략, 예측 및 공공관계 (약 20명)	지속가능개발 분석 및 오피니언	국가전략과 연계한 AFD 기관전략 수립, 연 예산 및 목표(target) 협의
	전사 전략	
	모니터링, 예측 및 기관	
	기업사회적책임, 책무성 및 투명성	
평가 및 지식 축적 (약 25명)	데이터-영향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약 20명), 과학적 영향평가(6명),
	평가 및 축적	분야별 평가,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지속가능개발 캠퍼스(25명)		협력국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자료 : AFD 2022, Melonio 2023

먼저 본부 내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혁신 유닛(Innovation Unit), FEEM, FID 이다. 혁신 유닛은 복합개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FD 내 혁신 관련 활동을 체계화 할 목적으로 2017년 신설된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체계, 툴, 방법, 의사결정구조를 고안한다. 글로벌 환경 기금(FEEM)³⁰⁾은 글로벌 환경과 관련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프랑스 공공 양자기금으로, AFD 혁신·연구·지식 본부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30) 경제재정 및 재건부, 유럽 및 외교부, 생태계 전환부, 농업 및 식량부, 고등교육·연구 및 혁신부처 등 5개 정부 부처와 AFD가 공동으로 주관함

있다. 개발혁신기금(FID)³¹⁾은 2019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가 의장으로 있으며, 빈곤퇴치 및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영향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점진적으로 5단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FEEM과 FID는 AFD와 국가 간 계약에 따라 AFD 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기관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경제평가 및 공공정책 부서는 국가리스크 평가와 GEMMES(General Monetary and Multi-sectoral Microdynamics for the Ecological Shift) 모델링을 담당하는데, 국가리스크 평가의 경우 AFD 중점 협력국인 60개국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국의 리스크 및 이슈 분석, 경제성장 궤도, 경제·사회·정치·재정적 취약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지원한다. GEMMES 프로그램은 AFD가 고안한 거시경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본, 채무, 실업, 불평등과 같은 재정 및 통화리스크와 지구온난화, 천연자원 고갈 등의 생태학적 장애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베트남 특정 분야³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 분야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 특정되었다. 연구진에 베트남 정부 측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GEMMES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의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AFD의 강점을 보여주며, 협력국의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이외에도 남아공, 모로코, 콜롬비아, 멕시코, 인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소규모 모델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Melonio 2023).

전략, 예측 및 공공관계 부서는 프랑스 국가 개발협력 전략과 연계하여 AFD의 기관전략을 수립하고, 기관의 연 예산과 목표(target)에 대해 외교부, 재무부와 협의를 실시한다(Melonio 2023). 또한, AFD의 사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생물 다양성, 기후, 사회 융합, 젠더, 거버넌스, 경제 6개 주제별로 사업의 영향(impact)을 -2점부터 3점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analytic grid)을 제시하여 사업 담당자가 스스로 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여기에 더해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AFD 2023b).

31) FID의 보조금은 파일럿 준비단계- Stage 1: 파일럿 이행- Stage 2: 실험 및 규모화 준비-Stage 3: 규모화- 협력국 공공정책에의 반영 단계에 걸쳐 지원됨

32) ① 강수량 변화에 따른 수력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농업 생산량 변화, ③ 메콩델타지역 침식 문제 분석, ④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시스템, GDP,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속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됨

평가 및 지식축적 부서는 현지사무소가 개별 사업 평가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기초선, 종료선 조사 시 방법론적으로 지원하며, 주제, 분야, 지역, 금융수단, 범분야 전략 등 개별 사업 보다는 넓은 범위 및 기간에 대한 평가와 영향평가는 동 부서에서 담당한다. 또한 워크숍, 초점 집단 인터뷰 등 참여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여러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지식생산 및 축적(capitalization)에 기여한다(AFD 2023a). 연구, 혁신 및 지식 전략(2019)에 따르면, AFD는 2020년부터 종료사업의 50% 이상, 그리고 사헬지역 사업의 70% 이상에 대해 평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 캠퍼스³³⁾는 협력국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혁신적 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여러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안팎에서 실시되며, 특별히 Global Sout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인력 및 예산

혁신·연구·지식 본부 직원(약 190명)의 70~80%는 경제학 또는 재정학 전공이다. AFD 직원은 연구 부서와 사업 부서를 순환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AFD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질인 거시경제 분석 능력을 갖춘 직원이 대부분 채용된다. 이외에도 인구통계학, 환경(기후), 농업, 개발학, 노동법 등을 전공한 인력이 근무한다. 직원의 2/3 정도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학문적 역량 외에도 협력국 정부와 정책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 또한 중요한 자질로 요구된다. 전체 본부 인원 중 연구원(researcher)으로 분류된 인원은 30명이며,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연구가 수행된다(Melonio 2023).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총 1,140만 유로(약 165억 4천만 원³⁴⁾)가 연구에 투입되었다. 이 중 590만 유로가 125개에 달하는 연구 용역 및 연구 프로젝트에 지출되고, 550만 유로가 협력국이 수행하는 4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지출되었다(AFD 2023d).

33) HQ가 위치한 파리가 아닌, 마르세유에 위치함

34) 2023.08.11. 환율 기준

4) 연구전략 및 목표

AFD의 연구는 AFD 주요 사업지원 전략(financing strategies)과 연계되어 있다. 연구 부서가 신설될 당시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질 높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사업과의 연계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AFD의 연구가 세계은행을 모델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연구의 결과가 AFD 사업 및 협력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면서,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 협력국과 활발한 정책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와 사업이 서로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Melonio 2023).

연구, 혁신 및 지식 전략(2019)에 따르면 AFD는 연구의 역할을 1) 행동을 지원하는 전략적 사고, 2) 지속가능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혁신의 촉매제, 3) 지식과 혁신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AFD 연구 달성목표별 실행과제

목표	1. 공공정책 반영을 위한 지식 및 혁신 동원	2. 기후-사회유대-경제 성장 간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생산	3.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실험 및 혁신 지원	4. 학습 및 공유를 위한 지식의 평가 및 축적
실행 과제	연구와 공공정책 간 시너지 창출	기후-사회유대-경제성장 연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신기술 및 자원 탐색	평가범위 및 방식의 확장
	지식공유에 공헌	향후 국제 논의 의제 예측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적이며 영향력이 높은 프로젝트 지원	AFD의 학습조직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 창출		변화하는 환경 및 위험 모니터링 및 예측	

자료 : AFD 2019 바탕으로 저자 정리

AFD는 주요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특별히 기후와 생물다양성, 불평등과 사회유대(Social link),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연구예산의 80%를 ①100% 파리협정(climate)과 생물다양성, ②100% 사회유대, ③3D 개발 (Defense-Diplomacy-Development) 연구에 배정하였다.

① 100% 파리협정과 생물다양성 연구의 경우 AFD 기후-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협력국이 저탄소, 회복력 있는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소개한 GEMMES 모델링이 이에 해당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기후

정책 이행에 예상되는 장애 및 기회 분석, 1.5℃ 기후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투자 재배치에 필요한 경제-환경-사회적 이슈 간의 관계 및 긴장도를 보여주는 종합지수 개발, 기후영향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수단 개발 연구도 포함한다. 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연구도 공공정책 및 AFD 사업 반영을 위해 실시된다(AFD 2019, 2023c).

② 100% 사회유대 연구는 AFD가 지원한 사업 및 정책이 협력국의 사회 결속(social cohes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한다. 또한 지역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가늠하기 위해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수준의 공공재를 분석하기도 한다. 사회 결속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심화 시 무너지게 되는 개념으로 협력국의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포함한다(AFD 2019, 2023c).

③ 3D 개발 연구는 AFD 사업대상지역 중 사헬이나 중동과 같은 취약지역에서 국방, 외교, 개발 정책의 조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다. 취약 지역에서의 AFD 사업의 맥락, 지역적 다이내믹, 각 개발 행위자의 현지 전략, 지역적 맥락에서 안보와 개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AFD 2019, 2023c).

이밖에 나머지 20%의 예산은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AFD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에 배정하여 수행한다(AFD 2019, 2023c). 일례로 지난 6월 프랑스 주최로 개최된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글로벌 금융협약 정상회의³⁵⁾에서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함께 ODA의 재정의 및 국제공공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2022년 10월 발간된 AFD 정책페이퍼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t the Age of Consequences (Melonio, Naudet, Rioux 2022)”에 기초하여 의제가 설정된 바 있다.

35)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al Pact: Towards more commitments to meet the 2030 agenda

5) 연구 수행과 활용

연구과제는 3-4년 장기로 수행되는 연구프로젝트부터 단기 수행과제까지 다양하다. 연구과제의 발굴은 하향식(Bottom-up)과 상향식(Top-down),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향식의 경우 해외사무소(Country Offices)를 통해 협력국의 연구 수요를 접수하여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특별히 협력국 개발정책 수립 시 기술 자문이 필요할 때 해당 수요가 발생하며, 연구 타당성 및 내부 연구 역량을 고려하여 연 12-15건 정도 선정하여 수행한다(Melonio 2023).

상향식의 경우 혁신연구지식본부가 먼저 관심 주제 및 분석 방법을 정하고 실험국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된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에 대한 경제 분야의 민감도 분석이나 생물다양성에 있어 위험성 분석 등은 혁신연구지식본부의 관심 주제로, 분석 방법 및 대상 국가를 자체적으로 먼저 결정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여 수행되었다(Melonio 2023).

AFD 연구는 2022년부터 내부 심의위원회(Research and Development Committee, CORED)의 심의를 거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중 90%는 연구 대상 지역(협력국)의 파트너를 최소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collaborative approach’ 원칙을 수립했다(AFD 2019). 협력국의 정책 논의에 적용가능한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국 정책 결정권자와 연구계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³⁶⁾ 같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여타 프랑스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AFD 2019). 이 과정에서 해외사무소가 주재국의 연구자들을 혁신연구지식본부에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Melonio 2023).

협력국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는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해당 연구의 협력국 내 가시성과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가능케 하고 연구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Melonio 2023). 또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의 챕터별 현지어 요약을 실어 현지어로 인터넷 검색 시 보고서의 가시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Melonio 2023).

36) AFD는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모로코, 말리 등과 전략적 대화 협약(strategic dialog memorandum)을 체결함

AFD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해 <표 III-5>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표 III-5> AFD 발간 보고서 종류

종류	내용
ExPost 평가보고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AFD 개발협력사업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및 영향 평가
MacroDev 거시경제노트	거시경제분석 및 국가 리스크 평가 보고서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시경제 이슈를 다룸. AFD 연구원 및 경제학자 작성
Research Paper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및 연구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AFD 연구원 및 전세계 학계 참여
Policy Brief (2020-, 11)	개발협력 관련 동향 전달 및 인식 제고, 논의 확산을 목적으로 발간하는 간략한 형태의 문서
Policy Paper	특정 지역 또는 개발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정책 제언의 형태를 띠는 문서로 정책결정권자,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대상 논의 및 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A Question of Development	AFD가 참여하거나 지원한 연구, 평가를 요약한 문서. 이슈,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시사점 등을 요약정리함
Technical Report	특정 개발 영역에 대한 기술적, 지정학적, sector-wide ³⁷⁾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 AFD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사례분석 및 현지 설문 등을 인용
Policy Dialogue	공공정책의 정교화 및 이행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 Message - Context & Motivation - Methods - Results - Recommendation의 목차로 구성됨
Special Edition	AFD 이니셔티브에 의해 실시된 연구를 발간하며, AFD의 전략 우선 분야를 다룸
공동 발간	
Africa Development Forum	AFD와 세계은행이 공동 발간하며, 아프리카 주요 사회, 경제개발이슈에 대해 두 기관이 실시한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수록
Repères	La Découverte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AFD에서 작성하였으나 미발간된 아프리카 주요 경제사회 이슈 분석 보고서를 수록

자료 : AFD 2023c 바탕으로 저자 정리

AFD는 상기 보고서 발간 시 연구 결과의 국제적인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의 영문화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2020년부터 Policy Brief와 같은 간략한 형태의 문서를 발간하여 개발협력 동향을 전달하고 연구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 개발협력 지식공유 및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협조하여 AFD 연구자가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함으로써 연구의 미디어 노출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상당한 국가로, 매년 La Découverte에서 발간하는 아프리카 경제에 관한 책자의 기후, 디지털 경제 등 일부 챕터를 AFD 연구자가 작성함으로써 대중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37) 국제개발에서 특정 영역에 관련된 정부와 원조 공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

보고서 발간 외에도 혁신연구지식본부는 2년에 한번 국제연구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식을 공유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3-4년 주기로 운영되는 AFD의 Research Program과 연계하여 논의할 만한 내부 자료가 충분히 쌓였을 때 선정하게 된다³⁸⁾. 전 세계 학계, 연구기관에서 연사를 초청하며, 컨퍼런스 발표 내용의 1/3 이상을 AFD 내부 연구결과로 채운다는 것이 특징이다.

6) 성과 평가

연구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Melonio(2023)는 인프라 건설 사업의 경우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한 산출물이 있는 반면, 연구는 성과를 거두는 것도, 또한 성과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우며 사업에 적용되는 잣대를 연구에 동일하게 들이댈 수 없다고 얘기한다. 상대적으로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 수나 평가 규모 등으로, 거시경제 분석은 리스크 측정 대상 국가의 수, 교육은 교육 대상 인원 등으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나, 연구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Melonio(2023)는 사실상 전체 연구의 20-30% 정도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인프라 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베트남 GEMMES 프로그램 결과물인 베트남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 예측에 대한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실제 활용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결과가 성공적으로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협력국 정부의 교체로 해당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성과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혁신연구지식본부는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dissemination)에 예산을 늘리는 추세이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elonio 2023, AFD 2019). 또한, 성과 관리의 일환으로 매주 AFD CEO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국가별 주요 정책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Melonio 2023).

7) 향후 방향성

향후 AFD 연구는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연구, 혁신 및 지식 전략문서(2019)’를 벗어나지 않지만, 1) 기후리스크 및 생태 기능에 대한 분석 강화, 2) 공공 개발은행에 대한 지식공유 프로그램 확대, 3)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확대, 4) 혁신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38) 2018년 주제는 불평등(Inequality), 2020년 주제는 개발은행(The Visible Hand: Development Banks in Transition), 2022년 주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 How sustainable are net zero development trajectories)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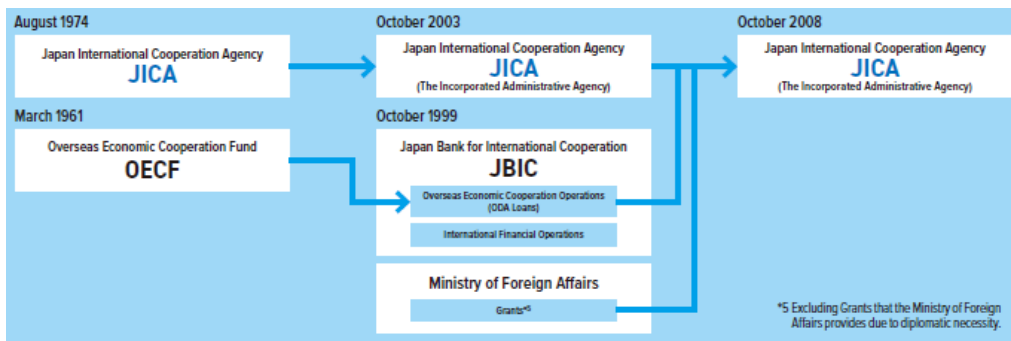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2년 내 수립될 새로운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Melonio 2023). 이는 AFD 사업전략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전략 간의 연계를 통해 연구와 사업 간 상호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elonio(2023)는 앞으로 연구·혁신·지식 부서의 기능 중 전략 수립 및 정책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AFD 기관 전체의 운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따라 AFD의 역할 및 비중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와 ODA 실행 목적과 수단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ODA의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AFD 기관 운영 및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연구·혁신·지식 부서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국제협력기구 오가타 평화개발연구소(JICA)

현재의 JICA는 2008년 무상 전담 기관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유상 전담 기관인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합병한 일본의 유무상 원조 및 기술협력 등을 전담하는 외무부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기관이다. 합병 당시 JICA의 이사장인 오가타 사다코³⁹⁾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로,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 기관의 연구 기능(JICA의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IIC)과 JBIC의 JBIC Institute)을 통합하여 연구소(Research Institute, RI)를 설립하였다. JICA에서 연구란 개발협력 분야의 정책적 및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JICA 및 일본의 국제적 및 학술적 인지도를 제고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림 III-2] JICA 통합 과정



자료 : JICA 2022

1) JICA 오가타 연구소 소개 및 연구 담당 조직 변천

RI 설립에 앞서 양 기관은 각각 IIC 및 JBIC Institute라는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IIC는 기술협력 사례 분석, 국가별/주제별 지원 전략, 지원 방법 분석 등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JBIC Institute는 경제협력, 개발원조 이론,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양 기관의 주요 역할에 따라 연구조직의 핵심 연구 분야에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2008년 양 기관의 연구조직은 JICA RI로 합병되었으며, 현재는 JICA 이사장

39) Ogata Sadako,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 일본의 학자, 외교관, 작가, 행정가이자 로마 가톨릭 소피아 대학교의 명예 교수. 정치학자이자 인간안보에 정통한 인물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장, 유니세프 집행위원회 의장, 일본모델유엔(JMUN) 집행위원회 고문 등으로 활동. 사업 추진 시 현장 중심의 실무적 접근을 강조하고 인간안보 실천에 헌신.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정책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소 설립을 주도함

직속 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 JICA 소속이면서도 연구소만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며,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JICA는 연구를 개발협력 사업의 하나의 유형⁴⁰⁾으로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이사장은 취임 이후 평화 및 안보에 특히 집중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책연구에 목적을 둔 기관으로 공여국으로서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개발경험을 종합하여 공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세계 최고의 연구 허브가 되고자 하였다.

JICA RI는 2020년 오가타 사다코 전 이사장을 기념하고자 연구원의 이름을 ‘JICA Research Institute’에서 ‘JICA Ogata Sadako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Development’⁴¹⁾로 변경하였다. 고인이 생전에 강조하던 평화와 개발을 연구소 이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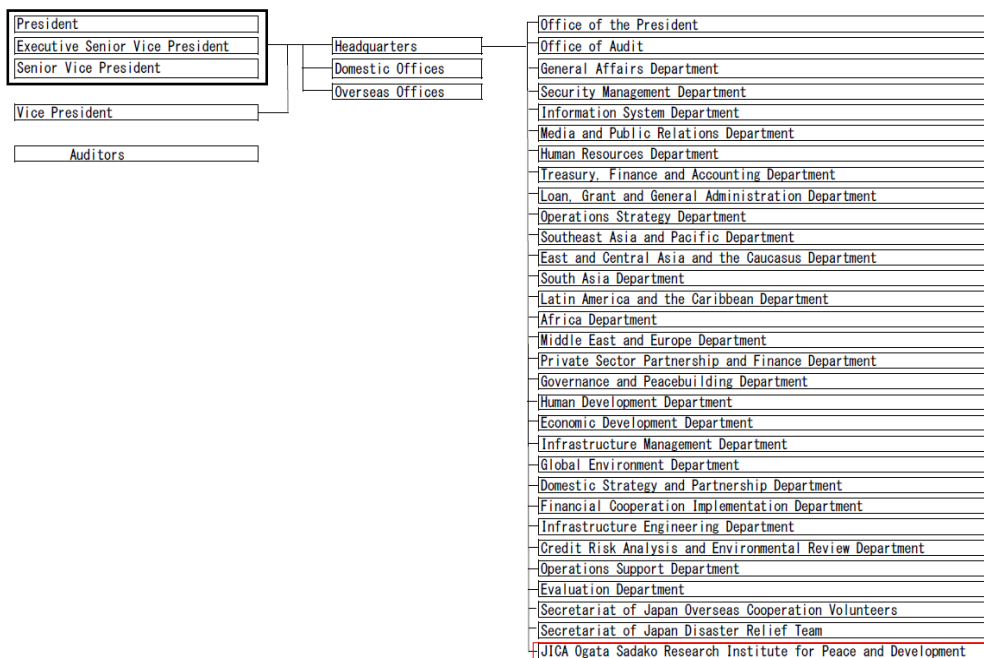
40) 기술협력, 유상원조, 무상원조, 봉사단, PPP, 연구 등 14가지로 구분

41) 명칭 변경 이후, 줄여서 JICA Ogata RI로 불리우나,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JICA RI로 작성

2) JICA 오가타 연구소 구성과 역할

JICA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맨 아래에 RI를 볼 수 있다. 조직도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JICA 본부는 크게 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략 부서, 지역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 특정 테마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 봉사단, 민관협력, 국내 사무소, 그리고 조달, 전문가 채용 등의 지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RI의 경우, 이사장 직속으로 본부 부서들과 달리 독립성을 갖고 있다.

[그림 III-3] JICA 오가타 연구소 조직도



자료 : JICA 2021

JICA RI는 크게 4개 카테고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RI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부서, 연구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개발학 프로그램 부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JICA RI의 주요 업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JICA RI의 연구는 정치와 거버넌스(Politics and Governance), 경제성장과 빈곤퇴치(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Peacebuilding and Humanitarian Support), 지구환경(Global Environment), 개발협력전략(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등 총 6개 클러스터로 나뉜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하나의 연구팀처럼 운영된다. 설립 당시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지구환경, 개발협력 전략 등 4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었으나, 2019년에 인간 개발과 2021년에 정치와 거버넌스를 추가하여 연구 분야를 확대하였다.

〈표 Ⅲ-6〉 JICA RI의 연구 클러스터

클러스터	주요 연구 내용
정치와 거버넌스 (Politics and Governance)	세계 곳곳에서의 무력 분쟁, 쿠데타, 권위주의 정권의 부상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이 파괴되고, 삶의 풍부한 잠재력을 추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음. 정치 거버넌스 클러스터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안보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 정치의 조건과 사회적 메커니즘을 연구함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국제사회에 여전히 많은 빈곤층이 존재함.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클러스터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개입 여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재정, 인프라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인간 개발 (Human Development)	양질의 교육, 의료 서비스, 역량강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과 협력이 요구됨. 개발도상국의 해외 유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일본의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역사를 분석, 또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회복력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향 연구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시함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Peacebuilding and Humanitarian Support)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클러스터의 두 가지 핵심은 인간안보와 평화 구축임. 평화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간안보에서 보호와 권한 부여의 관계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 유지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취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탐구함
지구환경 (Global Environment)	지구환경 클러스터는 기후행동뿐만 아니라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방법, 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아세안 국가의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과 조치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함
개발협력 전략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개발협력 전략 클러스터는 국제협력이 어떻게 가능해야 하며,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개발협력에 관한 역사적 연구, 다문화 공존 실현 방법과 같은 현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 농업 분야 및 국제 자원봉사에서의 협력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자료 : JICA Ogata Research Institute 2023b 바탕으로 저자 정리

연구 외에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팀이 있다. RI에서는 개도국 연수 프로그램 중 개발학 프로그램(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 DSP)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 JICA의 전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JICA 본부의 Domestic strategy and partnership 부서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DSP 또한 연구 부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개발에 연구 내용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⁴²⁾. DSP는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사업의

42) 모든 연구를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음. 단지, 수행

일환으로 일본의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자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과 연계하여(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IUJ) 및 JICA Open University 등 101개) 정치·법, 경제, 사회개발, 과학기술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는데, 기존 학위과정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JICA에서 제작한 일본의 개발역사를 각 학위과정에 추가하였다는 점이다(Saito 2023b)⁴³⁾.

JICA RI의 DSP 부서는 일본의 개발 과정 및 개발 협력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일본 근대화·현대화 과정 등을 담은 연구를 기반으로 ‘Seven Chapters on Japan’s Modernization’이라는 명칭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8개를 추가하여 총 15개⁴⁴⁾로 학위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과정의 일부는 JICA RI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필요시 연구진이 직접 강의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위과정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TV 강의 및 DVD 발매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2008년 JICA 합병 이후 이사장은 계속 교수 출신이었기에 이사장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DSP는 JICA Chair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국의 대학에 DSP를 공유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본의 개발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일본의 개발협력 지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Saito 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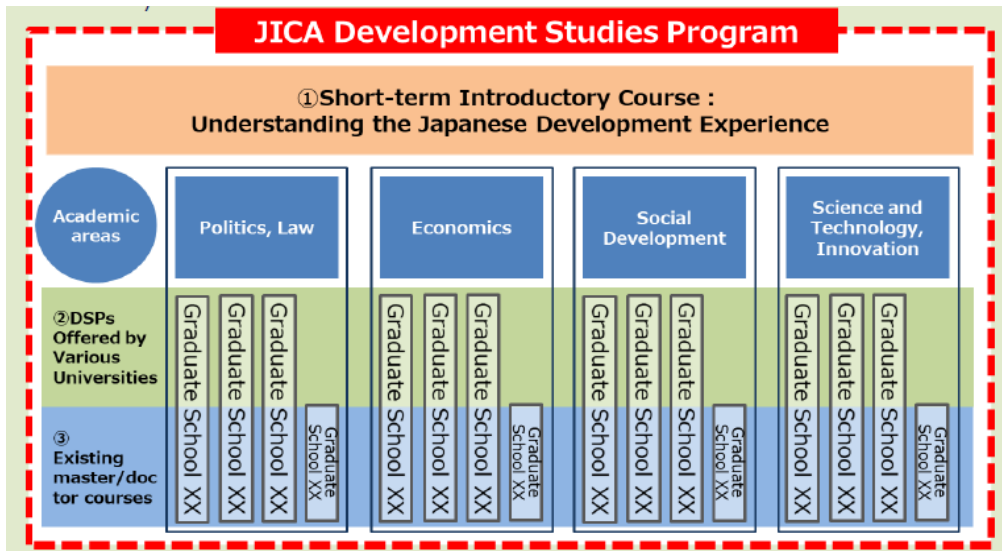
한 연구가 교육과정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으로 개발을 진행함.

43) 학위증은 대학에서 발급하며, JICA에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에 수료증을 발급

44) 일본 근대화 과정 목차

Ch.1	Meiji Revolution: Start of Full-Scale Modernization
Ch.2	Rise and Fall of the Party Politics in Japan
Ch.3	Japan after World War II
Ch.4	Economic Growth and Japanese Management
Ch.5	Educational Development in Modernization in Japan
Ch.6	From ‘Japan and Asia’ to ‘Japan in Asia’
Ch.7	A Japanese Approach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Ch.8	Intellectual and Social Aspects of Modernization in Japan
Ch.9	Modern Japan and the Wars Part1
Ch.10	Japan and Modern International Law
Ch.11	Modernization of Japan’s Administrative System
Ch.12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Industrial Policy
Ch.13	Modernization in Japan – The Fiscal and Monetary Field
Ch.14	The Road to a 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h.15	Public Health and Health Systems in Japan a Historical Review

[그림 III-4] JICA DSP



자료 : JICA 2023b

또한, JICA RI는 전시관⁴⁵⁾ 및 도서관⁴⁶⁾을 운영하고 있다. 총 3개의 대규모 서고와 소규모 열람실로 구성된 도서관은 JICA의 기록을 관리하고 사업 자료의 공유를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서관은 197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6만 7천여 개의 JICA 사업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봉사단 및 연수생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까지, 총 16만여 권과 기타 시청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1998년부터 자료의 디지털화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90%의 사업 보고서(6만 3천여 개)를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은 직원, 사업 참여자, 봉사자, 연수생 등, 개발협력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으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aito 2023b).

한편, JICA RI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까지도 업무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나, JICA 내 타 부서 혹은 일본 외무성과의 협업이나 교류는 적은 편이다(Saito 2023a). 학술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써 정치와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JICA의 규모⁴⁷⁾가 큰 반면 RI만의 독립성을 갖고 있어 타 부서와의 직접적인 교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5) JICA RI 로비에 개발협력, SDGs, 오가타 사다코 전 이사장에 대해 전시

46) JICA는 RI 내에 운영되는 도서관 외에도 JICA 국내 사무소에 10개의 도서관을 운영함. 하지만, RI 도서관과 국내 사무소 도서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도서관 간의 기술적인 연계 외에 다른 협업은 없음

47) JICA 전체 인원은 약 2천 명 수준

3) 인력 및 예산

연구 인력은 전체 RI 인력 약 100명 중 절반 수준인 약 50명이며, 이중 상근하는 연구원은 약 30명 정도이다. 상근 연구 인력은 일부 JICA 순환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구과제별 계약직으로 RI에서만 4~5년간 근무한다. 또한 타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및 연구원이 시간 제로 RI 연구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연한 연구진 구성은 연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JICA RI의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Saito 2023b). 한편, JICA RI의 23년 기준 연구 예산은 약 35억 원 정도(4억 엔)⁴⁸⁾로, DSP, 도서관⁴⁹⁾, 인건비 및 기타 행정 예산은 제외한다(Saito 2023b).

4) 연구 전략 및 목표

JICA의 제5차 중기계획(2022-2026)⁴⁹⁾에 의하면 연구는 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제동향 형성을 통해 개발협력 학계 발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싱크탱크로서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요인을 통합한 종합적인 개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JICA RI를 일본 내외 개발 및 국제협력 연구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ICA RI는 JICA 이사장 직속부서로 JICA의 타 사업 부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RI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 또한 별도로 수립한다. 이는 JICA RI의 싱크 탱크(Think-tank)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현재 JICA RI는 ‘평화와 개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공동 생산(Co-creating practical knowledge for peace and development)’이라는 비전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널리 전파(conduct research of international academic standard and actively disseminate this)하고, 사업 현장에서의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연구와 실무를 연결(bridge research and practice by analyzing and synthesizing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field)하며, 인류의 안전보장을 실현하는데 기여(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한다는 전략 방향성을 갖고 있다. JICA의 미션(JICA,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will work on human security and quality growth) 및 비전(Leading the world with trust) 또한 인간안보와 양질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48) JICA 직원 2명 + 사서 4명, 연간 예산 약 5억 8천만 원(6천4백만 엔)

49) JICA의 중기계획은 JICA 본부가 외무성과 협의 하에 n-2년에 기획하며, 연간 계획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중기계획을 이행하는 프로세스 혹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법을 포함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RI의 비전이 연구에 특화되고 학술 부문에서의 역량 확장을 구체적으로 목적하고 있으며, 나아가 JICA 내부적으로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연구 수행과 활용

현재 JICA RI는 약 30개 정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과제 대부분은 3-5년 혹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 프로젝트이며, 연구 프로젝트 당 1~4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연구 프로젝트는 규모에 따라 다수의 연구보고서를 포함하기도 한다. 연구 과제의 발굴은 전략 방향에 따라 사업 부서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거나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 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최근에는 영향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연구 과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Saito 2023a, 2023b).

한편, RI는 연구를 외부 업체에 발주하지는 않는다. 대신 일본 또는 선진국의 타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와 콜롬비아 대학(정책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 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IPD)과 약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로, 협력국 연구진과의 교류는 미미하다. 과거 농촌개발분야 연구에서 협력국 파트너 기관이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나, 연구진으로써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었다(Saito 2023b).

JICA RI는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모든 연구보고서를 JICA RI에서 발간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부서에서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한다(Saito 2023b).

〈표 III-7〉 JICA RI 발간 보고서 종류

종류	내용
Research Papers	(연구보고서) 개발 이슈 및 개발협력 관련 연구 성과를 학술 논문 형태로 발간
Discussion Papers	(토론 논문) RI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특정 개발협력 이슈 관련 조사 분석한 동향 보고서
Working Papers	(조사 보고서) RI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증거 기반 또는 과학적 분석을 정리한 보고서
Policy Notes (구) Policy Briefs	(정책 노트) 연구결과를 JICA 사업에 적용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최신 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개발 정책 및 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제안을 요약. JICA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국내외 국제개발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종류	내용
Books and Reports	(도서) 개발협력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양장본 도서
Literature Reviews	(문헌조사) 일본 및 국외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을 조사
Knowledge Reports / Field Reports	(지식 보고서, 현장 보고서) 전 세계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JICA 사업에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요인 분석을 포함하여 사업 경험과 지식에서 얻은 결과 등을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
Others	(기타) 국제기구 및 타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JICA RI의 연구 결과물 전체

자료 : JICA Ogata Research Institute 2023a 바탕으로 저자 정리

특히, JICA RI는 2022년 10월 Human Security Today 첫 호를 발간하였다. RI 비전에서도 강조하듯, 인간안보를 주제로 연구, 기고문 등을 편집하여 발간함으로 인간안보에 대한 공헌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RI의 대표 보고서(flagship report)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Saito 2023b).

JICA RI는 보고서, 학술 논문, 서적 등의 발간 외에도 온라인 세미나 및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RI의 지식을 공유함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적 존재감을 더욱 높이하고자 한다. 지식 포럼(Knowledge Forum)은 개발협력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는 RI의 대표적 세미나다. 일반적으로는 RI의 연구 결과 및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영어 동시통역을 통해 전 세계 개발협력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Saito 2023b). 대부분 RI 연구진이 관련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구 프로젝트 내에 다양한 소연구를 포함하고 있기에 특히 연구 종료 시 연구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결과물을 공유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제기구, 타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협력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개발협력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RI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6) 성과 평가

JICA RI는 연구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JICA RI는 일부 보고서에 한해서 동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연구에 대해 동일한 몇 가지 기준으로 연구 결과물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DSP 또한 별도의 평가 체계는 없다.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엔 아직은 시기 상조라 판단하며, 성공 사례 등을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으로 대신한다(Saito 2023b).

RI에 대한 평가는 교수 평가진으로 구성된 외부 독립기관에서 독립적으로 매년 진행한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정량적인 지표는 연구보고서 발간 수이다. 제5차 중기계획에 의하면, JICA RI의 목표치는 300개 발간이다. 이는 연간 약 60개 발간으로, 현재 22년 및 23년 발간은 모두 6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Saito 2023b).

다만, 발간 수가 적합한 지표인지, 그리고 논문, 책, 보고서 등 개수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평가자들 사이에서는 사업과 연구의 연계를 강조하며, 연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Saito 2023b).

7) 향후 방향성

JICA RI는 향후에도 학술 중점 연구 방향성을 지속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RI의 목적을 학술적 기여에 둔 오가타 사다코 전 이사장의 유지를 이어가고자 하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JICA RI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JICA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30 SDGs의 중간 지점에 도달한 현재, 지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SDGs 이후 개발 목표 등에 대해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JICA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중요하겠으나, 학술적 연구 결과 또한 JICA의 존재와 평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연계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향후 영향평가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aito 2023b).

4.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IDOS)

독일은 BMZ가 독일 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하고 대부분의 ODA 집행을 총괄하며, 국제협력공사(GIZ)가 기술협력, KfW 개발은행과 독일투자개발공사(DEG)가 금융협력을 담당한다. 독일 개발협력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는 BMZ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형태로 주로 IDOS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IDOS 연구 비용은 모두 독일의 ODA로 계상되고 있다. BMZ는 IDOS 외에도 독일 개발평가연구소(DEval)와 여타 연구기관, 학계, 싱크탱크를 지원하고 있다. DEval은 최근 평가 외에도 연구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IDOS와 일부 중첩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Janus 2023). 4년에 한번 작성되는 German Coalition Agreement 2021-2025⁵⁰⁾에서 연방정부는 IDOS와 DEval을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각각의 연구와 평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Government of Germany 2021).

독일 개발협력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은 자주 발생한다. IDOS와 DEval의 경영진 간 회의는 1년에 최소 2번 실시한다(Janus 2023). 또한, BMZ 주재하에 GIZ, KfW, IDOS, DEval, 독일 연방 물리기술원(German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PTB), 독일 연방 지질자원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BGR)가 모두 참석하는 개발협력 관련 주제별(농업, 효과성, 증거기반 등) 토론이 정기적으로 열린다(Janus 2023).

본 장에서는 특별히 독일 개발협력연구의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IDOS의 설립 배경과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ODA연구센터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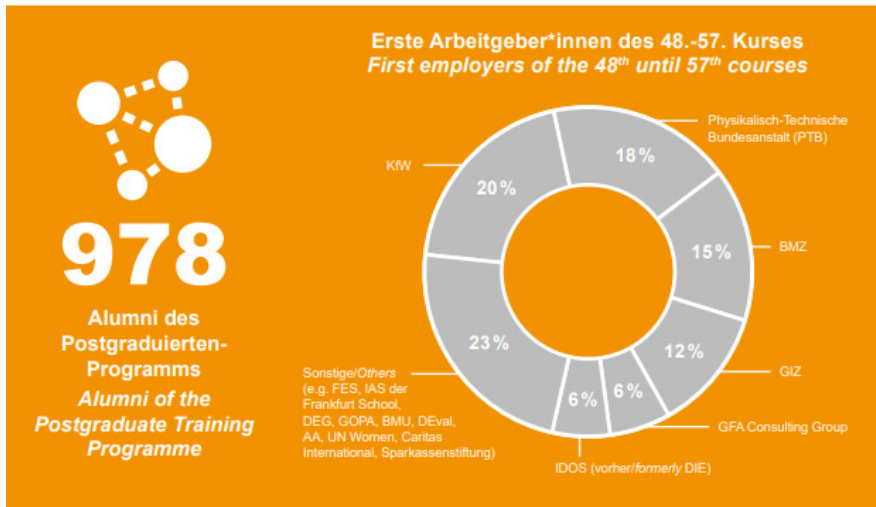
1) IDOS 구성 및 배경

IDOS는 2022년 현재의 기관명으로 바꾸기 이전, 독일개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DIE)로 독일 개발협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64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독일 또는 여타 유럽대학 졸업생 20명을 선정하여 약 1년간 개발협력 연구자로 키워내는 대학원 과정(Postgraduate Training Programme)을 운영하는 것이 DIE의 설립 목적이며, 현재까지도 59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50) 독일은 새로운 연방정부 구성 시 향후 4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연합 협정을 작성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음. 2021년 작성된 현재의 협약은 “더 많은 진보를 위한 도전- 자유, 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Dare more progress- Alliance for Freedom, Justice, and Sustainability)”이란 제목으로,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당 연합이 작성함

본 과정 수강생은 2-3개월 가량 기관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강의를 듣고, 선임으로 배정된 연구자와 함께 개발도상국 현장에 나가 개발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Janus 2023).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물과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며 형성된 탄탄한 동창 네트워크가 IDOS가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5] IDOS 대학원 과정 졸업생 첫 취업 현황



자료 : IDOS 2022, 61

현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인 Achim Steiner와 BMZ의 3개 부서의 국장(Director-General)이 동 과정 출신이다. [그림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생은 통상 BMZ, GIZ, KfW, PTB, IDOS, DEval, NGO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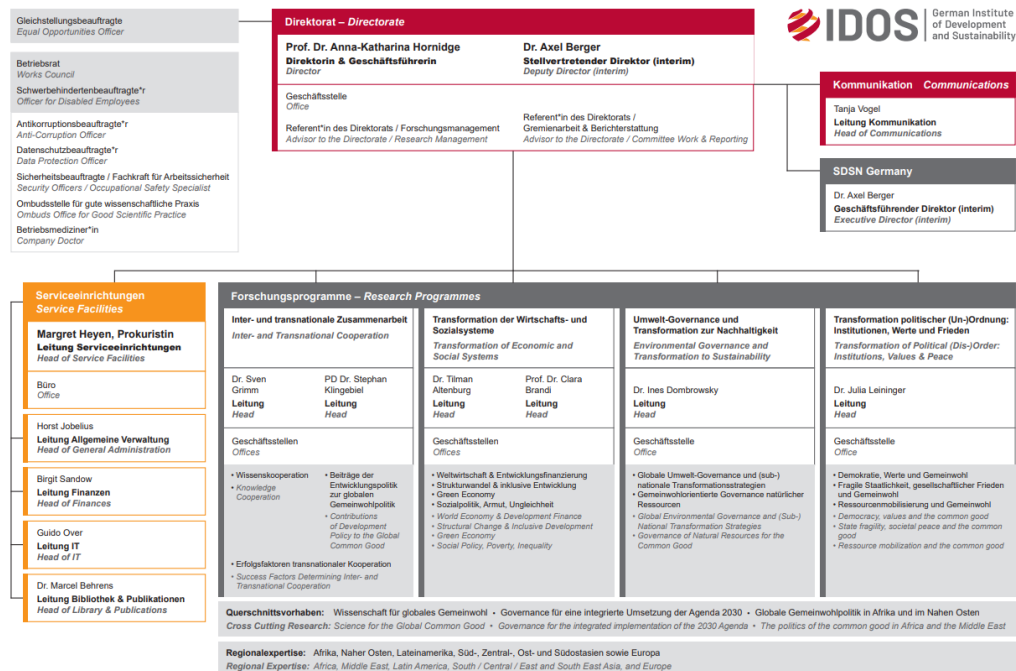
DIE는 BMZ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점차 연구 프로젝트의 수를 늘리면서 이제는 담당 업무에서 대학원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연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3년 새로운 Director로 Dirk Messner⁵¹⁾가 부임하면서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비전을 설정하며 3-40명이던 직원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BMZ 외의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독려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점차 성장하여 현재 직원 200여 명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51)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재임함

현재 IDOS의 담당 업무는 연구, 정책자문, 교육이며, 교육에서는 대학원 프로그램 외에도, Managing Global Governance 아카데미, BMZ African-German 리더십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IDOS 2022).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며, IDOS 업무의 두 개의 축은 연구와 정책자문이 되었다. 연구의 경우 대학과 유사하게 Academic article을 쓰며, publication, peer review publication, research grants로 각각 연구원의 실적이 평가된다(Janus 2023).

조직은 기본적으로 4개의 연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프로그램은 1) 초국가적 및 국제협력(Inter-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2)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Transformation of Economic and Social Systems), 3) 정치 질서의 변화(Transformation of Political (dis-)order), 4) 환경 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이다. 각 연구프로그램은 행정을 위해 1-2개의 부서(department)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총 6개의 부서가 있다.

[그림 III-6] IDOS 조직도



자료 : IDOS 2022, 94

각 연구프로그램의 역할을 살펴보자면, 먼저 초국가적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국제협력)과 시민사회, 민간, 연구계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

(초국가적 협력)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로,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세계 경제 역학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세계 흐름과 국가 경제 및 사회 정책 및 전략간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최종적으로 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셋째로 정치질서 변화 프로그램은 공동선을 평화적으로 촉진할 공통의 가치와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의 틀을 제공하는 규범적, 제도적 전제조건을 조사한다. 본 연구 프로그램은 이론 주도의 비교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기후, 환경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파리기후협약과 2030 의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특히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 중점을 두고 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생태계 및 인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연구 과제는 <표 III-8>과 같다.

〈표 III-8〉 IDOS 연구 프로그램별 클러스터

프로그램	클러스터	내용
초국가적 및 국제협력	글로벌 공공재 마련을 위한 개발 정책	개발정책이 글로벌 공공재 마련 및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 분석
	초국경 및 국제협력 결정 요인	성공적인 협력 요인 (협력의 근거, 제도적 차원, 행위적 차원) 분석
	지식협력	초국적 지식행위자 및 지식 커뮤니티/네트워크 분석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세계 경제와 개발자원	지속가능한 경제 및 공평한 규제를 위한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금융기구, 개발은행 등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 간 상호작용 검토
	구조 변화와 포용적 개발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 도시화, 녹색화 트렌드와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의 기회와 위험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와 가치사슬 형성, 비공식 경제 부문 육성 정책 등 연구
	녹색 경제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가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글로벌 경제 시스템 개혁 및 인센티브 재조정 방안 연구
	사회정책, 빈곤, 불평등	사회정책이 빈곤층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결속과 안정을 증진하는 방안 연구. 주로 사회보험 및 이전 제도, 사회보호, 소상공인 및 근로자 지원 메커니즘에 초점을 둠
정치질서 변화	민주 변혁과 가치	민주주의 지속 요인과 독재화 촉진 요인 분석, 글로벌 사우스 지역 규범과 가치의 역할 분석
	취약성, 분쟁, 난민	취약국가의 경험적 패턴 분석, 분쟁 후 국제평화구축 및 민주주의 지원 효과와 사회결속력 향상 방안 조사, 난민이 호스트 커뮤니티 사회결속에 미치는 영향 조사

프로그램	클러스터	내용
	자원 동원과 공공재를 위한 구조개혁	국내 자원동원이 사회결속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역 이주 제도, 국제 조세협력의 역할 연구
환경 거버넌스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와 국가변혁전략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와 기관 간 상호작용 연구, NDC의 이행, 글로벌 사우스에서 기후거버넌스의 초국적화 현상, 기후행동과 2030 의제 간 상호작용 검토
	공공재를 위한 천연자원 관리	글로벌 사우스 토양, 담수, 해양 생태계의 천연자원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환경적 영향 분석

자료 : IDOS 2023b 바탕으로 저자 작성

IDOS는 2022년 6월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라는 현재의 기관명을 갖게 되었다. 개발과 지속가능성은 불가분의 관계로, 둘 사이 긴장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이 IDOS의 주요 연구 및 자문, 그리고 교육의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현 IDOS 기관장인 Anna-Katharina Hornidge 박사에 따르면, 새 기관명이 비대학 연구기관으로서 독일과 국제연구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정책 중심의 싱크탱크로서 공공 담론을 적극 형성하고 있는 기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한다(IDOS 2022, 2-3).

2) 인력 및 예산

IDOS에는 2022년 기준 2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50명 정도가 연구자이다(IDOS 2022). 연구 인력이 많은 만큼, 박사학위 소지자가 79명에 달하며, 17명이 박사후보생이다. 또한 독일을 포함한 유럽권 국가부터,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권 국가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국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IDOS 2022, 60). 각 연구 프로그램별 인원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 IDOS 연구 프로그램별 구성인원

연구 프로그램	프로그램장(Head) 인원	연구자 인원	행정 인원
초국경 및 국제협력	2	40	2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2	50	1
정치질서 변화	1	23	1
환경 거버넌스	1	32	1
총합	6	145	5

자료 : IDOS 2023b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밖에도 50여 명의 행정인력이 근무하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 3-5명 정도 소수의 인원만이 졸업생 관리를 포함한 대학원 프로그램 행정 운영에 투입되고, 연구자들이 재학생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Janus 2023).

IDOS의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IDOS의 법적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DOS는 독일 연방정부가 7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가 25%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이다. 매년 이와 같은 비율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기관 예산(institutional funding)을 받는데, 2021년 기준 약 7,146 천 유로, 한화로 약 102억 원에 달한다(IDOS 2022). 이는 직원 인건비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계약(project funding)을 수주하여 예산을 충당한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 계약금액이 2021년 기준 약 8,297 천 유로, 한화로 약 119억 원이었다(IDOS 2022)⁵²⁾. 아직까지 프로젝트 펀딩의 상당부분은 BMZ로부터 오나, 여타 부처, EU 집행위원회, 학계와 단기 프로젝트 계약을 맺기도 한다(Janus 2023). IDOS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 교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BMZ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 한도(5백만 유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는 BMZ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야 한다. IDOS는 BMZ에서 받는 프로젝트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과 인력을 각 프로그램에 균형있게 분배하여 운영하고 있다(Janus 2023).

3) 연구 수행과 활용

연구 수행 방식은 대체로 어디서 프로젝트를 수주받는지(funder)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BMZ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1-2명이나 5-10명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직접 관련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도 협력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BMZ 외에 학계나 다른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밖에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3개월간 현지 연구 프로젝트 수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때 현지 파트너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직접 예산과 함께 연구 용역을 수주하는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므로, IDOS가 역으로 예산을 주어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Janus 2023).

52) 2023년 10월 16일 환율 적용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IDOS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단기간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도 있지만, 유엔 개발 시스템, EU 개발협력, 개발효과성과 같은 주제의 경우 10년에서 30년 장기간 연구되고 있다. IDOS 연구자가 직접 연구 주제를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신이 속한 부서장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연구자 본인이 펀딩을 받아오는 경우 승인이 수월해진다 (Janus 2023).

연구와 달리 정책자문은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연구자 각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전문가 토론, 원조 규정 검토 등을 의뢰받아 실행하며, 정책 수준에서의 자문, 실무급에서의 기술적인 자문 모두 실시한다. 대부분 전략 차원에서의 정책자문이 이루어지나, 개별 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기도 한다.⁵³⁾ 원칙적으로는 연구와 정책자문 모두에 있어 연구 수행자의 독립성이 있으나, 사실상 의뢰하는 부처, 기관의 다양한 피드백이 오고 간다.

연구원당 연 최소 1개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간하며, 부처 정책자문을 위한 정책 페이퍼 또한 작성한다. 2022년 기준 IDOS의 발간물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표 III-10〉 IDOS 발간물 종류

종류	내용
Discussion Paper	연구 프로젝트, 논문, 평가 및 정책 보고서 작성 시 파생되는 중간 단계의 소논문
Policy Brief	개발정책 및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며, 명확한 제안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책입안자, 실무자,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함
Studies	규모 있는 학술연구, 자문보고서, IDOS 대학원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보고서 등이 해당되며, 지역 및 주제별 이슈에 초점을 맞춤
Current Column	국제개발협력 최신 동향 정리 및 시사점

자료 : IDOS 2023a

IDOS 자체 발간물 외에도 연구자들은 정기적으로 동료 심사 및 비심사를 거친 독일 및 국제 학술지, 타 연구기관 발간지를 포함한 저명한 출판물에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연구물 발간 외에도 IDOS 연구자는 지식공유를 위해 학술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부처 전문가 토론, NGO, 싱크탱크와의 토론 등 정책대화에 참여하며 대학 강의로도 실시한다. 또한 IDOS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며, 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IDOS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한다.

53) 원조 방식의 효과성 연구(예: 능률급 지급(payment by result)의 효과성 등)는 실제 개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개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문으로 보긴 어려움(Janus 2023)

4) 성과 평가

연구자는 연구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연구가 끼친 영향(impact)에 대해서 기술하여 제출한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주관적이며, 논리모형이나 변화이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DOS는 향후 연구 및 정책자문 7개년 전략 작성 시 연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변화이론, 인과성, 영향, 더불어 양적 지표 제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⁵⁴⁾ 연구자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맥락(context)을 명확히 정리할 때 연구의 성과를 파악하고 추적하며 관리하기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Janus 2023).⁵⁵⁾

영향 수준이 아닌 산출물(activity)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연구자 발제 횟수, 컨퍼런스/워크숍 개최 횟수, 발간물 개수 등 대부분 양적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5) 향후 방향성

IDOS는 독일 정부의 개발협력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 위해 2022년 기관명을 바꾸기도 하였다. IDOS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향하는 과정에서 언어, 직원 구성,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화와 독립성 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와 학술연구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급변하는 개발협력 환경에서 글로벌 공공재 논의와 함께 개발협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다. 관련하여 경영진과 직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Janus 2023).

54) 아직 제안 단계에 있음. IDOS의 연구전략은 내부분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Heiner에 따르면 현 전략은 글로벌 공공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Janus 2023)

55) 글로벌개발연구소(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는 연구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Ideas to Action” 시리즈를 발간하여, 예를 들어 CGD가 그간 10년간 Paper를 통해 미국에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DFI가 설립되기까지의 내러티브를 정리함으로써 CGD 연구의 성과를 홍보함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KOICA, Norad, AFD, JICA 오가타 평화개발연구소, IDOS 5개 기관의 연구 담당 부서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1〉 5개 기관 연구 담당 부서 비교표

	KOICA	Norad ⁵⁶⁾	AFD	JICA RI	IDOS
독립성	X	X	X	△	△
비전	-	-	글로벌 싱크탱크	글로벌 싱크탱크	글로벌 싱크탱크
부서 신설 시기 (년)	1991	2021	2002	2008 ⁵⁷⁾	1964
연구 확대 계기 (시기)	-	-	리더십 (2010년)	리더십	리더 (2000년대 초)
연구 예산 ⁵⁸⁾ (원)	약 10억	별도 배정 없음	약 166억	약 41억	약 119억
인력 (연구인력)	8 (3)	17 (15)	190 (30)	100 (50)	204 (150)
위탁 연구	O	O	O	X	X
연구 인력의 부서이동	X	X	O	X	X
자체 전략	O	X	O	X	O
연구 목적	전략 방향성 수립을 위한 연구	데이터 기반 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거시경제모델링)	기관전략 방향성 수립 및 개발협력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략 방향성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주요 연구주제	개발협력 패러다임, 개발효과성, 파트너십	-	기후 및 생물다양성, 사회유대, 국방-외교- 개발 연계	평화 및 인도적 지원, 경제성장 및 빈곤 완화, 환경, 개발협력전략, 인간개발, 거버넌스	초국가 및 국제협력,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 정치 질서 변화, 환경 거버넌스
장기 연구프로젝트 보유	X	X	O	O	O
데이터 통계관리 기능 보유	X	O	O	X	X
연구 외 업무	학술 활동 지원, 학술지 운영, 연보 발간, 국제 컨퍼런스, 도서관 운영	지식관리체계 수립,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자문	전략 수립, 국가리스크평가, 사업평가, 교육	학습자료 개발, 도서관 운영	정책 자문, 교육, 도서관 운영

	KOICA	Norad ⁵⁶⁾	AFD	JICA RI	IDOS
지식공유방식	포럼, 세미나	소규모 회의, 세미나	방송매체 출연, 국제연구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학술 컨퍼런스, 정책대화, 강의, 워크숍
영문보고서 발간	X	X	O	O	O
부서 성과지표	보고서 다운로드 수, 보고서 자문위원 평가점수	X	X	연 60건 이상 보고서 발간	연구자 발제 횟수, 지식공유 횟수, 발간물 개수
연구 성과지표	X	X	X	X	X

자료 : 저자 작성

KOICA, Norad, AFD는 개발협력 실행기관에 속한 연구 부서로서, 기관의 전략 방향성과 기관의 수요에 부합한 연구를 해야하는 반면, JICA RI는 JICA의 전략에 따르되 국제 연구허브로서의 독립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IDOS 또한 BMZ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글로벌 싱크탱크를 목표로 조금씩 독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은 사업 연계 연구보다는 학술연구를 다수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FD는 기관 내 연구 본부이지만, 글로벌 싱크탱크의 비전을 갖고 있으며 개발협력 이행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며,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식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Norad의 연구 부서는 최근에 신설되어 논외로 하고, AFD, JICA, IDOS는 모두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리더십에 의해 연구조직이 부상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KOICA는 연구조직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교체에 따라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으며, 현재 까지도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 인력이 많은 JICA와 IDOS는 자체 인력 또는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며, 타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FD는 타 기관과 달리 연구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데, 이는 연구의 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연구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KOICA, AFD, IDOS로 확인되었다. Norad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노르웨이 전체 교육·연구 분야 전략의 방향성을 따르며, JICA RI는 JICA 전체 기관 전략 수립시 참여하며 기관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운영된다. 다만, RI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이

56) 자체 연구를 수행하는 지식부서에 한정하여 작성. KOICA의 연구 공모 사업 시 참고할 수 있는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의 NORHED 프로그램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함

57) 2008년 JICA와 JBIC가 합병되면서 각각의 연구조직인 IIC 및 JBIC Institute의 기능을 모아 JICA RI를 설립함

58) 부서 운영비를 제한, 순수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략 제시하고자 함

기관전략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KOICA, JICA RI, IDOS 모두 개발협력 전략 방향성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JICA RI와 IDOS는 좀더 학술적인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개발협력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Norad는 기관 내부적인 목적으로 개발협력 동향을 조사하고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 발간된 보고서는 현재까지 없으며, 주로 내부 업무자료로 쓰인다. AFD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과 연구의 연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거시경제 연구팀을 별도로 두어 거시경제 모델에 입각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기관별 주요 연구 주제를 살펴보자면, KOICA는 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 개발효과성,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AFD는 기후, JICA RI는 평화 구축 및 인도적 지원, IDOS는 글로벌 공공재 마련과 공동의 과제해결을 위한 초국가 및 국제협력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KOICA와 다른 기관이 다른 점은, AFD, JICA RI, IDOS 모두 집중하는 연구 주제를 클러스터로 나누어 담당한다는 점이다. 클러스터가 나누어져 있어 산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제를 두고 연속성을 가지고 3~5년 장기간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Norad의 연구는 아직 내부 활용을 위한 업무자료 생산의 성격을 띠므로 특정 주제에 집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KOICA를 제외한 개발협력 실행기관(AFD, Norad) 내 속한 연구 부서는 데이터 통계 관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5개 기관 연구 부서의 연구 외 업무를 살펴보면, KOICA는 학술활동 지원, 학술지 운영, 연보 발간, 국제 컨퍼런스 개최, ODA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타 기관에서는 연보와 국제 컨퍼런스 업무는 주로 홍보부서에서 맡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AFD 또한 연구 부서에서 격년으로 국제연구컨퍼런스를 개최하긴 하나, 이는 연구 부서에서 실시한 연구의 축적된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orad는 연구 외 조직 내부 지식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문을 담당한다. AFD는 전략, 평가, 교육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JICA RI는 일본의 개발 과정 및 개발 협력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업무가 추가로 있으며, IDOS는 정책자문과 교육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관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JICA RI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 사업 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식공유는 대체적으로 포럼, 세미나를 활용하는 등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AFD의 경우 연구자의 라디오, TV 등 미디어 노출도를 높이고 있으며, AFD, JICA RI, IDOS 모두 전 세계 독자 확보를 위해 영문보고서의 발간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글로벌 싱크 탱크라는 세 기관의 비전과도 맞닿은 부분이다.

성과지표를 살펴보자면, KOICA와 JICA RI, IDOS만 부서 성과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양적 지표인 보고서 다운로드 수와 질적 지표인 자문위원 보고서 평가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JICA RI는 연간 보고서 60건 이상 발간을 충족하면 된다. IDOS는 연구자 발제 횟수, 컨퍼런스/워크숍 개최 횟수, 발간물 개수 등 양적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AFD, Norad는 부서 성과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부 회의를 통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연구의 성과지표는 모든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다. 연구는 모든 연구가 성과가 있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며 특히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꾸준히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구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IV. 결론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언

개발협력 기관에서 연구조직의 역할은 거시적으로는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술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조직 내 학습을 통해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협력 분야는 결국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방대하고 통합적이며 다양한 시각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개발도상국은 위기 상황에 대해 취약하다. 위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지속되는 위기 상황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도, 지원해야 하는 공여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 힘들다.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관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확대 혹은 축소를 쉽게 결정짓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개발을 비용으로 판단하고 축소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안준모 2018). 연구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라면, 연구 역량 저하는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 및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거나 회복력이 저하되며, 관련 분야 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협력 기관의 연구조직은 기관의 목적과 전략 방향성에 따라 중점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한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연구 조직은 기관에 따라 연구 목적, 예산 및 인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직의 성격도 하나의 팀에서 독립된 기관까지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 서로 다른 성격과 형태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 연구조직의 역할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오히려 기관의 비전에 따른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KOICA는 기관 설립부터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기관의 예산 및 인력이

크게 증대하고 이에 따라 전략 방향성 수립 등에 연구의 역할과 비중도 함께 커짐에도 불구하고, KOICA의 연구조직에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반면, 사회 전반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및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증대되는 불확실성은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개발협력에서 불확실성의 증대는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있어서 더 많은 분석과 연구를 사전에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 확대되는 조직의 규모와 역할에 적합한 연구조직으로 변화 모색은 매우 시급하다. 특히, 연구 과제, 인력, 협업체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 및 개선이 적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KOICA에서 연구는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전략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규모 연구 인력으로 초창기에는 지식기반 마련 성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미래 이슈 대응 성격만을 띠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개발이 주로 지식기반 마련에서 미래 이슈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가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ODA연구센터가 기본적으로 KOICA의 연구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현 조직체계에서 개발협력 담론 및 정책, 그리고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분야를 포함하는 등의 방대한 연구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선택과 집중을 미래 방향성 제시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KOICA의 ODA연구센터는 OECD DAC 가입과 함께 개발협력 분야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미래 이슈 대응에 초점을 둔 방향성 수립 연구를 선도하는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KOICA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DA연구센터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조직 내 공감할 수 있는 ODA연구센터만의 비전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조직의 주 업무는 연구 수행이며, 당연히 사업 수행과는 차이가 있다. KOICA에서 연구를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조사 수준에서 내부 조직으로 머무르게 할 것인지, 타 연구기관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AFD, JICA RI, IDOS의 경우 글로벌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각각의 비전 및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KOICA의 상황에서는 글로벌 싱크탱크를 지향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갖고 점진적으로 그 역할과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기관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의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조직이라는 비전하에, 기존의 내부 역량 강화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ODA연구센터의 연구 주제는 조금씩 변해왔으나, 결과적으로 기관의 학습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다. 소규모 조직으로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로 확산하며, 초창기 ODA 연구 기반 마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함으로 ODA연구센터가 개발협력 연구 분야의 플랫폼이자 국내 개발협력 학술생태계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KOICA 연구조직의 현황분석과 타 공여기관의 연구조직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ODA연구센터의 가장 큰 제약사항은 인력이다. ODA연구센터의 3~4명의 연구 인력으로 KOICA 내외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KOICA는 순환근무를 하지만 연구는 특정 학위를 보유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에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기에 연구에 특화된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 직원들을 포용하여 연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KOICA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받은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 KOICA는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해 4년 동안 동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바, 이들이 특정 기간 부서 이동 없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일반 직원들이 ODA연구센터 배치시, 기존 연구진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부서 이동에도 남아있는 기존 연구진이 연구를 이어감으로,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한 싱크탱크 연구기관과의 협업 또는 KOICA 국별 협력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써 협력국 연구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KOICA의 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국내외에 ODA연구센터의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의 확대는 연구 결과물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 인력이 많을수록 전략·정책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 분석, 분야별 혹은 지역별 분석까지, 다룰 수 있는 연구 주제를 폭넓게 확대할 수 있다. 혹은 연구의 규모를 확대하여 하나의 주제 안에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즉, 연구 인력이 증가할수록 연간 수행 가능한 연구의 양적 또는 질적인 확대가 가능하다. 물론, 연구 인력의 확대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 규모를 확대하며 현재의 단년도 연구를 다년도에 걸친 연구로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연구를 시행할 경우, KOICA 내외부 평가시 연간 연구 결과물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대체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주제의 다양화는 간행물의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ODA연구센터의 간행물은 크게 연구보고서, 개발과이슈, Working Paper, 정책브리핑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지와 연보도 있다. 연구 주제가 다양해질 경우, 개발협력 저변확대 차원에서 짧고 간결한 정보전달 형태의 보고서에서부터 특정 개발협력 주제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까지, 주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독자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KOICA ODA 연구센터를 대표하는 보고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JICA RI의 경우, RI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인간안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유사하게 KOICA도 KOICA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ODA연구센터를 대표하는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ODA연구센터 및 KOICA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ODA연구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식공유의 핵심 수단인 보고서는 대부분 한국어로만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참여자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다수의 개발협력 연구기관에서는 영어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더 나아가 현지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AFD, JICA RI, IDOS 모두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다. 또한 AFD의 경우, 현지어 요약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국 현지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고서의 영문화 및 현지어화는 결국 ODA연구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개발협력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ODA연구센터 또한 일찍이 보고서 영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보고서에 한해 영문보고서를 함께 발간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정책브리핑의 경우, 연구 전체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ODA연구알리미⁵⁹⁾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영문보고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바,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AFD를 벤치마킹하여 개발도상국 연구진이 포함된 공동연구에 대해 현지어 요약을 포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 외에도 ODA연구센터의 대표적인 지식공유 활동으로 ‘서울ODA국제회의’ 및 ‘개발협력포럼’이 있다. 국제회의 및 포럼은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개발협력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회의는 학술적인 성격보다는 홍보성 행사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기에 국제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홍보성 성격이 강조되는 만큼,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연구 부서에서 지속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ODA연구센터와 유사하게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Norad와 AFD의 사례를 보면, Norad에서는 컨퍼런스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59) KOICA의 신규 연구보고서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신 연구 정보를 가공하여 ODA 연구 정보를 한눈에 알리는 뉴스레터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홍보부서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며, AFD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성격의 국제회의로 연구 부서가 중심이 되어 격년으로 개최한다. ODA연구센터의 국제회의는 학술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개발협력분야 주요 이슈 또는 KOICA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거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협력포럼은 현재는 국문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나, 청중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국영문 모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타 조직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ODA연구센터는 KOICA 내외부와의 협업이 많은 편이 아니다.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수도 있겠으나, ODA연구센터의 규모가 작기에 발생하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타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일부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내부적으로 연구에 관심있는 직원들과의 협업이 있을 수 있다. 과거, ODA연구센터에서는 타 부서 직원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여, 타 부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ODA연구센터의 연구 인력과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타 부서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ODA연구센터에 속해있는 교육팀 또는 연수사업실과 협업하여 연구 및 교육(역량강화)의 활동을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AFD, JICA RI, IDOS 모두 교육 커리큘럼 구성에 참여함으로 교육 기능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JICA RI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다. ODA연구센터 또한 교육팀 및 연수사업실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에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업한다면, ODA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팀 및 연수사업실의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업전략실, 대외협력·신사업개발팀 등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신사업 발굴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통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KOICA 외부와의 협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KOICA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외교부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에, 기관 대 기관으로 보면 협업이 필수다. 모든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ODA연구센터의 업무에 있어서는 컨퍼런스 운영에 한하여 협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과거에는 외교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등 진행 과정에 외교부의 참여가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교 전략 이행 및 전략과 연계하여 ODA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개발협력 연구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KOICA의 ODA연구센터 기능을 확대함으로 관련 부처의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의 협업, 또는 OECD 세미나와 같이 다양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발협력 연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제안한 ODA연구센터의 향후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KOICA의 중장기 경영목표의 전략과제 중 하나인 ‘개발협력 지식 정보 공유로 국민 인식 제고’ 이행 차원에서도 필요한 변화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KOICA에서 연구가 갖는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공유하고 인지하는 것이 우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타 기관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기관 리더십의 연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연구조직의 발전에 크게 작용하였다. 연구조직의 발전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KOICA의 개발협력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전략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KOICA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재 ODA연구센터 구조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며 KOICA의 역할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연구 인력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식기반을 강화하는 연구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후 연구조직이 안정화가 된다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화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인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JICA RI 및 IDOS의 경우, 연구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싱크탱크 상위권 순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협력분야 싱크탱크 대표주자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외교안보연구원(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등이 있다. KOICA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현재의 ODA연구센터의 독립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JICA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연구소로서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연구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또한 현재 사업 수행 관점에서 부수적인 요소로써 연구를 인식하기보다는, 연구 관점에서 온전히 연구의 역할을 인식하고 평가함으로 KOICA의 사업이 확대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면, 통계, 교육, 기록 등의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모두 연계될 필요는 없겠으나, 각 기능 간의 상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는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와 현황 모니터링과는 분리가 사실상 어렵다. 교육을 KOICA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연구 결과물을 보다

다양하게 환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OICA의 기록관리는 결국 연구보고서 발간 및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 보고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기에 KOICA의 기록을 관리하고 대국민에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과 서고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통계 데이터 등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보고서 발간, 교육 커리큘럼 개발, 학술지 및 컨퍼런스·포럼 운영하고 이를 기록으로 정리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결국 지속적으로 조직 내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며, 이를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속에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지식과 전문성을 융합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KOICA에서 바라보는 연구의 의미를 다시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3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KOICA의 규모와 역할에 적합한 연구조직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기찬. 2009. 기업생태계관점에서의 연구개발 전략과 플랫폼 리더십. *중소기업연구* 31(2): 157-175
- 김선호, 조경호, 홍성만. 2001. 연구개발 조직의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조직관리 전략. *한국정책학회보* 10(2): 135-166
- 박수영, 안미선, 고요한. 2023. 무상원조 운영체계 비교분석. *한국국제협력단*, 64-69
- 서용석, 윤기영. 2016. 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안준모. 2018. “어렵다고 연구비 줄인 기업, 3년 후 성과 가장 나빴다.” *동아비즈니스리뷰* 245호 (2018년 3월 Issue2)
- 이승연, 박수경. 2019. 직무특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 검증. *기술혁신학회지* 22(1): 85-118
- 임현 외. 2022.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환경변화 탐색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포스코경영연구소*. 1998. *지식경영*. 서울: 더난출판사
- AFD. 2023a. “Evaluations.” AFD Website
- AFD. 2023b. “How AFD Group aligns its projects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3/01/06
- AFD. 2023c. “Research at AFD.” AFD Website.
afd.fr/en/research-discussing-and-advising
- AFD. 2023d. *Studies & Research Activity Report 2022*
- AFD. 2022. “AFD Organization Chart.” AFD Website.
- AFD. 2019. *Strategy 2019-2022 – Research, Innovation & Knowledge*. AFD
- AFD. 2014. *Knowledge Production at AFD*. Working paper 140. AFD
- CGD. 2022. *Ideas to Action – Case Studies of the influence and Impact of Five Initiatives at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ev.org/case-studies
- FFEM. ffem.fr/en/
- FID. fundininnovation.dev/en/
- Gioacchino, Gioel, and J. Sumberg. 2016. *Foresigh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DS Bulletin Vol.47 No.4
- Government of Germany. 2021. “Dare more progress – Alliance for Freedom, Justice

- and Sustainability.” Coalition Agreement 2021–2025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Alliance 90/The Greens and the Free Democrats (FDP)
- IDOS. 2023a. “PUBLICATIONS.” IDOS Website. 2023년 10월 17일 접속
idos-research.de/en/publications/
- IDOS. 2023b. “RESEARCH.” IDOS Website. 2023년 10월 13일 접속
idos-research.de/en/research/
- IDOS. 2022. Annual Report 2021–2022
- JICA. 2023a. JICA Annual Plan for Fiscal Year 2023
- JICA. 2023b. “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JICA Chair.” JICA Website. 2023년 11월 7일 접속. 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dsp-chair/index.html
- JICA. 2022a. Annual Report 2022
- JICA. 2022b. The 5th Medium-term Plan
- JICA. 2021. “Organization Chart.” JICA Website. April 1. 2021
jica.go.jp/english/about/basic/jica/index.html
- JICA. N/A. Brochures JICA-DSP
- JICA. N/A. Brochures JICA Chair
- JICA Ogata Research Institute. 2023a. “Publications.” JICA RI Website. 2023년 11월 7일 접속. jica.go.jp/english.jica_ri/publication/index.html
- JICA Ogata Research Institute. 2023b. “Research Clusters.” JICA RI Website. 2023년 11월 7일 접속. jica.go.jp/english.jica_ri/research/clusters.html
- JICA Ogata Research Institute. 2022. Human Security Today. Revisiting Human Security. No.1
- KOICA. 2023. “조직도.” KOICA 웹사이트. 2023년 11월 7일 접속.
koica.go.kr/koica_kr/861/subview.do
- Marschall, Paul. 2018. Evidence-Oriented Approach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D.I.E.
- Melonio, Thomas. J.D. Noudet, and R. Rioux. 202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t the Age of Consequences.” Policy Paper, No. 11. AFD
- Nonaka, I. and H. Takeuchi.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NewYork : NY, Oxford University Press

- Norad. 2023. "Organisation chart." Norad Website. 2023sus 11월 7일 접속.
norad.no/en.front.about-norad/organisation-chart/
- Norad. 2021. Norad's strategy towards 2030
- Norad. 2020a. Call for proposals: NORHED II 2021-2026
- Norad. 2020b. NORHED II portfolio 2021-2026
- Norad. 2020c. NORHED II Programme Document
- Norad. 2020d. "NORHED II 2021-2026" norad.no/3m/front/funding/norhed/
- Norad. 2020e. "University partnerships receive funding for 60 projects through the NORHED programme." 2020.12.18.
- Norad. 2018. Mid-term Review of the Norwegian Programme for Capacity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 (NORHED)
- Norad. 2015. The Norwegian Programme for Capacity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 RESULTS 2015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Research Strategy for the Foreign Service and Norad 2017-2024
- ODA연구정보센터. 2020. KOICA 연구 중기전략 2021년~2023년. 2020.12.
- OECD. 2015. Frascati Manual 2015: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Reporting Data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nnovation Activities, Paris: OECD
- OECD. 2012. OECD Factbook 2013. oecd.org/sdd/08_Science_and_technology.pdf
- OECD. 2011.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Good Practice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ONGD. 2021.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Fragmentation, Adaptation and Innovation in a Changing World
- Ruggles, R.L. 1998. "The state of the notion : Knowledge management in practi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3): 80-89
- Rhydderch, Alun. 2016. Foresigh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DS Bulletin vol.47 no.4 Sept. 2016
- Strategic Foresight Unit. 2019. Strategic Foresight for Better Policies. OECD
- Tjonneland, Elling. 2022. Norwegian Development Aid: A Paradigm Shift in the Making?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49(3): 373-397

- UK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0.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lobalisation Work for the Poor.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wich: HMSO
- USAID. 2020. Evidence Base for Collaborating, Learning, and Adapting. USAID
- Wagner, Caroline. A. Yezril, and S. Hassel. 2001.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Development: An Update to an Inventory of U.S. Government Spending

인터뷰

- Janus, Heiner. 2023. Interview by author. June 14, 2023
- Melonio, Thomas. 2023. Interview by author. March 20, 2023
- Nygard, Havard Mogleiv. 2023. Interview by author. March 22, 2023
- Saito, Yukari. 2023a. Interview by author. July 24, 2023
- Saito, Yukari. 2023b. Interview by author. October 24, 2023
- Sjoveian, Solbjorg. 2023. Interview by author. March 21, 2023

부록

〈부록 1〉 KOICA ODA 연구센터 2021-2023년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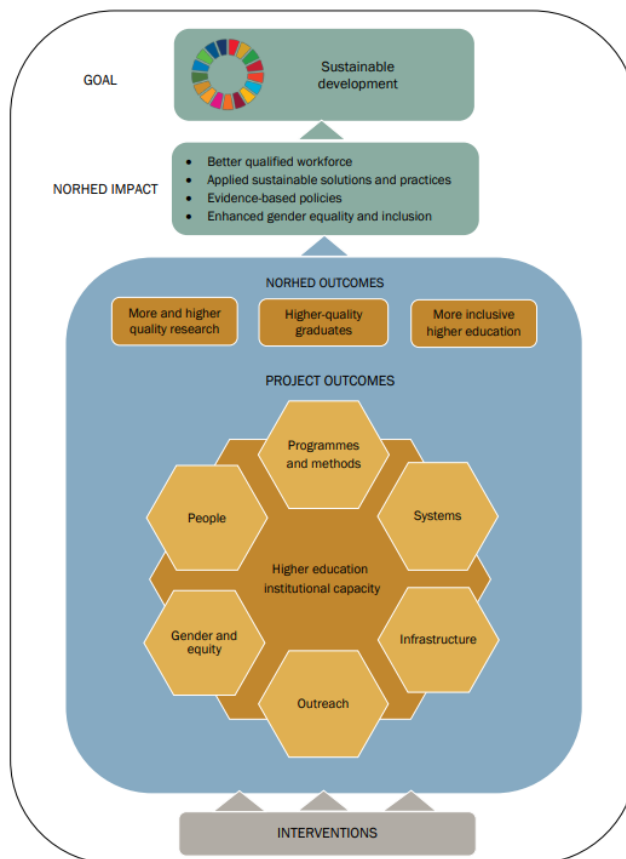
2023년	
1	HDP Nexus를 위한 한국ODA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2	2015-2019 KOICA 국별협력사업산업연관분석
3	KOICA의 지역개발협력전략 개선 방안
4	개발협력기관 ESG 지표 체계 분석
5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6	물의 범분야화와 KOICA 사업에의 함의
7	글로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표 개발과 적용 - 중아시아에 대한 ODA 전략 모색
8	연구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베트남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분석 모형 구축과 활용
9	기후변화대응과 보호무역의 경계
10	개발자원 보증 들여다보기
11	DAC 공여국의 인도적지원-개발-평화 넥서스 이행 현황
12	How do Non-DAC actors cooperate on development?
13	Exploring barriers and opportunities for deepening cooperation for development
14	Spanning the North-South divide: What is the role of 'bridging' countries in fostering cooperation for development?
2022년	
1	COVID-19 백신 자원은 ODA인가?
2	개발협력 평가 지수 분석과 함의 : CDI와 QuODA를 중심으로
3	추가성(additionality)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4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ESG
5	개발자원과 개발금융기관 관련 최신 동향
6	민간금융수단(PSI) ODA 분석 및 함의
7	KOICA 개발협력사업에서 Adaptive Management(능동적 적응 사업 관리) 활용 방안
8	녹색 회복 및 포용적 개발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 사례 분석 연구
9	2022년 인도적 접근 지수 분석
10	A global development paradigm for a world in crisis
11	무상원조 운영체계 비교분석
1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조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21년	
1	개발협력 통합적 접근법의 의미와 사례
2	모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논의 현황
3	OECD 다면적 취약성 프레임워크의 변화: 사람 중심의 '인적자본' 요소 반영
4	TOSSD Pillar II 의의와 STI 개발협력사업 확대방안
5	주요 인도적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
6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연계: 상생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 현황 고찰
7	COP26 글래스고기후합의_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8	무상원조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연구
9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_ KOICA 개발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중심으로
10	주요 공여국별ODA추진체계 변화분석 연구
11	ESG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_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12	JICA의 중소기업 및 SDGs 비즈니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제언 - BOP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3	KOICA 보건역량강화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부록 2〉 NORHED 참고자료

2021-2026 현재 진행 중인 NORHED II의 변화이론은 그림 1과 같다. NORHED의 각 사업은 협력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의 프로그램과 방법론, 체계의 개선, 인재 양성, 양성평등 및 포용, 인프라 개선, 지식공유의 증가를 꾀한다. 이는 종합적으로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더 높은 역량의 갖춘 인재 배출, 포용적인 고등교육의 제공에 기여한다. 장기적으로는 협력국이 수준 높은 노동력을 갖추고, 복합도전과제에 지속가능한 해결책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대응하며, 양성 평등 및 포용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록 그림 2-1] NORHED II 변화이론



자료 : Norad 2020c, 10

NORHED 각 사업은 NORHED II의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해 성과모형 작성시 표준 지표(standard indicators)를 포함해야 한다. 영향(Impact) 준위에서 4개, 성과(Outcome) 준위에서 4개, 산출물(Output) 준위에서 2개로 총 10개의 지표가 표준지표로 제시되고 있다(부표 2-1 참조). NORHED II 프로그램 문서(Programme Document, PD)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표준 지표 외에도 포함할 수 있는 지표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사업 제안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Norad 2020c, Annex 2).

〈부표 2-1〉 NORHED II 사업 표준 지표

지표명	준위
1. 공공정책에 NORHED 지원 연구의 반영 또는 영향	영향
2. 지역사회, 시민사회, 민간에서 NORHED 지원 연구의 결과물, 기술, 혁신, 해결책 등의 활용/영향	영향
3. 졸업생의 관련 시장 취업 비율 (성별분리 데이터)	영향
4. 고용주의 졸업생에 대한 평가	영향
5. 학술 저널에 게재된 횟수	성과
6. 졸업률 (성별분리 데이터)	성과
7. NORHED의 지원을 받는 부서/교수진에 고용된 교직원이 NORHED 지원으로 더 높은 학위(석사/박사/박사후 과정)를 취득한 수	성과
8. NORHED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에서 포용성과 다양성 증가 (장애, 소수집단 등 소외된 집단의 동등한 교육/연구 접근성)	성과
9. 지식공유 활동 횟수 및 종류	산출물
10. 신설/보완된 학위 프로그램의 개수	산출물

자료 : Norad 2020c, Annex 2

NORHED I 진행 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가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8년에 중간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각 사업에서 제출한 성과모형과 연차보고서, 예산 지출 계획을 포함한 연간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부 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 평가가 실시되었다. 모든 사업이 표준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 및 Norad 담당자와의 면담,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는 NORHED I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한 업무를 정리한 표이다. 아직 NORHED II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문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부표 2-2〉 NORHED I 포트폴리오 평가 업무

업무 1 : 산출물 및 성과 정리
아래 항목에 중점을 두고 각 사업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수준에서 집계하여 정리
-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적, 국가적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운영되었는가
- 교수진, 직원, 학생 여성 비율이 높아졌는가
- 학생들이 양질의 자격을 갖춘 교수진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 연구활동의 질이 높아졌는가
업무 2 : 주요 활동 및 성과 정리
국가 수준 및 개별 사업 수준에서 주요 활동 및 성과 정리. 현지 조사를 통한 내러티브 작성
업무 3 : 지급 및 지출 비교 분석
개별사업별/서브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전체 지급 예산과 지출 내역 비교 분석
업무 4 : 변화 및 리스크 평가
연간 업무계획과 연차보고서를 비교하여, 변화된 내용과 문제점 파악, 리스크 분석 및 완화 방안 도출
업무 5 : 데이터 취합
사업별 제출된 표준지표 데이터 취합하여 프로그램 수준에서 차트, 그래프, 맵 등으로 제시, 집계된 데이터에 대해 정량 및 정성 분석
업무 6 : 종합 평가 및 보고
종합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투명성, 능력주의(meritocracy) 등 사업의 성과 도출을 가능케 하는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도전과제를 규명함. 범분야 이슈인 젠더주류화, 분쟁과 환경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

자료 : Norad 2015, 60

〈부록 3〉 NORHED II 포트폴리오

NORHED II portfolio 2021-2026

Sub-programme: 1.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ID#	Project title	Applicant organisation	Contact person	Partner countries	Project partners in the Global South	Duration in years	Amount applied for in NOK *final amount may be adjusted
59900	Nurturing SDGs through Higher Education Capacity Building in Ethiopia	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 (USN)	Mengiste, Shigaw	Ethiopia	University of Gondar Addis Abab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Debre Markos University Hawassa University Jimma University	6	20 000 000
60000	Enhancing the quality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in Ethiopia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Aasefse, Jørund	Ethiopia, South Sudan	Bahir Dar University University of Juba Makerere University	6	19 988 914
61200	CABUTE - Capacity Building for Research-Based Teacher Education	University of Bergen (UIB)	Sætre, Steinar	Uganda	Kyambugo University, UNITE - The Uganda National Institute of Teacher Education	6	19 523 537
62040	Transformative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Sustainable Growth	University of Agder (UiA)	Reichert, Karl-Heinz Frank	Ethiopia, Rwanda, Uganda	Jimma University, University of Rwanda,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62862	Institutional Network for Design and Manufacturing Education & Training	University of Stavanger (UiS)	Lemu, Hirpa	Ethiopia	Jimma University, Wollega University	6	19 154 073
63103	Establish research-based basic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in Nepal	NLA University College (NLA)	Mjanger, Ruth Hol	Nepal	Nepal Open University, Driestar Christian University, Gandaki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re (Pvt Ltd), Tribhuvan University, Mid Western University	6	19 983 236
63260	Inclusive Education in Nepal	Oslo Metropolitan University (OSLOMET)	Haug, Marit	Nepal	University of Dar Es Salaam, Makerere University	6	17 528 488
68105	Mathemat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versity of Bergen (UIB)	Alendal, Guttorm	Tanzania, Uganda	Palandi Teachers College of Special Needs, Tanzania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Dodoma	3	19 986 239
69002	Learning is Visual	Western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HVL)	Wilhelmsen, Gunvor Birkelav	Tanzania	Palestine Polytechnic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	6	10 000 000
70481	Equip Palestine with E-Learning (E-Pal)	University of Oslo (UiO)	Hermansen, Hege	Palestine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	6	19 984 428
70822	Decolonizing Epistemologies: the Disciplines and the University	University of Bergen (UIB)	Halvorsen, Tor	Uganda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Sub-programme: 2. Health							
ID#	Project title	Applicant organisation	Contact person	Partner countries	Project partners in the Global South	Duration in years	Amount applied for in NOK (final amount may be adjusted)
59360	South Ethiopia Network of Universities in Public Health II (SENUPH II)	University of Bergen (UIB)	Lindijom, Bernt	Ethiopia	Hawassa University, Dilla University, Arba Minch University	6	19 669 741
60260	A Training Program to Improve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in Malawi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Odland, Jon Øyvind	Malawi, South Africa, Zambia	Malaw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Malawi, Kamuzu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Kwazulu Natal, College of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Zambia, School of Nursing	6	19 974 614
60360	GROWNUT-2	University of Bergen (UIB)	Hatløy, Anne	D.R. Congo, South Africa, Tanzania	Kinshasa School of Public Health, UNIKIN – Université de Kinshasa, Centre for Rural Health, University of Kwazulu Natal, Muhimbili University of Health and Allied Sciences	6	20 000 000
60520	iCARTA - Institutionalisation of Advanced Research Training in Africa	University of Bergen (UIB)	Tylleskar, Thorkild	Kenya, Malawi, Rwanda, South Africa, Uganda	African Population and Health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alawi, University of Rwanda,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61240	Strengthening academic capacity in physiotherapy education in Nepal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Stensdotter, Ann-Katrin	Nepal, South Africa	Kathmandu University School of Medical Science (KUSMS), Kathmandu Medical College (KMC),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6	15 793 513
61720	The Urban-Suburban Nexus towards One Health approach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UiT)	Eregno, Fasil Ejigu	Ethiopia, Malawi	Addis Ababa University, Malaw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6	19 993 448
62141	Consolidating Training and Research in Surgery and Related Specialities	University of Bergen (UIB)	Lund-Johansen, Morten	Malawi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Malawi, Queen Elizabeth Central Hospital, Kamuzu Central Hospital	6	22 944 402
64420	Public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Myanmar (MY-NORTH-II)	University of Oslo (UiO)	Bjertness, Espen	Myanmar, Thailand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University of Community Health, University of Medicine 1, University of Public Health, Mahidol University	6	20 000 000
68602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A One Health Approach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UiT)	Tyland, Morten	South Sudan, Uganda	University of Bahr El Ghazal, Makerere University	6	19 829 002
68926	Strengthening Agency & Learning across Health Systems in the Americas	University of Bergen (UIB)	Ruano, Ana Lorena	Argentina, Colombia	Centro de Estudios de Estado y Sociedad,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6	20 000 000
69181	SAFeworkers - Safe Work Conditions by Innovative Research and Education	University of Bergen (UIB)	Moen, Bente Elisabeth	Ethiopia, Tanzania	Addis Ababa University, Muhimbili University of Health and Allied Sciences	6	20 000 000
69940	Strengthened doctoral education for health in Tanzania (DOCEHTA)	University of Oslo (UiO)	Moen, Kåre	Tanzania	Muhimbili University of Health and Allied Sciences, University of Dodoma	6	19 974 595

70320	Midwifery Research and Education Development (MIDRED)Palestine and Ghana	Oslo Metropolitan University (OSLOMET)	Mortensen, Bert	Ghana, Palestine	University of Ghana, Birzeit University, Palestinian Authorities -Ministry of Health, UNFPA	6	19 928 714
70324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through Primary Care leaders Education	University of Bergen (UIB)	Mildestvedt, Thomas	Malawi, South Africa, Zambia	University of Malawi, Stellenbosch University, Division of Family Medicine and Primary Care, University of Zambia	6	20 000 000
70722	Implementing simulation – based education in Malawi and Tanzania	University of Stavanger (UIS)	Tjoflat , Ingrid	Malawi, Tanzania	Kamuzu College of Nursing, Kilimanjaro Christian Medical University College	6	18 798 069

Sub-programme: 3. Climate Change and Natural Resources							
ID#	Project title	Applicant organisation	Contact person	Partner countries	Project partners in the Global South	Duration in years	Amount applied for in NOK *final amount may be adjusted
60563	Citizens Participation in Resource Governance and Sustainable Transition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Rye, Ståle Angen	Indonesia	Universitas Gadjah Mada, Politeknik Negeri Pontianak, Universitas Bangka Belitung, Universitas Nusa Cendana	6	20 000 000
60683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under Increasing Extremes and Uncertainty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Lein, Haakon	Ethiopia, Rwanda, Tanzania, Uganda	Hararaya University, Institute of Resource Assessment, University of Dar es Salaam, Uganda Marty's University,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61320	Climate smart agriculture in Sub-Saharan Africa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Martinsen, Vegard	Ethiopia, South Sudan, Uganda, Zambia	Wondo Genet college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 Hawassa University, University of Juba, Makerere University, Gulu University, University of Zambia, University of Nairobi, Mbey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gerton University, Lilongwe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University of Eduardo Mondlane, University of Dar Es Salaam, Makerere University, University of Zambia	6	19 962 196
62402	Enhanced Capacity for Aquatic Resources in East and South Africa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Mutoloki, Stephen	Kenya, Malawi, Mozambique, Tanzania, Uganda, Zambia	University of Nairobi, Mbey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gerton University, Lilongwe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University of Eduardo Mondlane, University of Dar Es Salaam, Makerere University, University of Zambia	6	20 000 000
62461	Capacity Building in Aquatic and Environmental Health in West Africa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Evensen, Øystein	Ghana, Nigeria	University of Ghana, University of Development Studies, 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Lagos	6	20 000 000
63113	Ecosystem-based management of coastal marine resources (ECOGIV)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UiT)	Armstrong, Claire	Ghana, Indonesia, Vietnam	University of Cape Coast,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Nha Trang University, University of Malawi, University of Dar es Salaam, University of Mzuzu	6	18 132 720
63826	Climate change and ecosystems management in Malawi and Tanzania	University of Oslo (UiO)	Xu, Chong-Yu	Malawi, Tanzania	University of Malawi, University of Dar es Salaam, University of Mzuzu, Addis Ababa University, University of Ghana, University for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Nairobi, Machakos University, University of Rwanda, University of Juba, Makerere University	6	19 868 321
64909	Water ESSENCE Africa - creating synergy to meet the global challenges	University of Bergen (UiB)	Sætersdal, Tore	Ethiopia, Ghana, Kenya, Rwanda, South Sudan, Uganda	University of Ghana, University for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Nairobi, Machakos University, University of Rwanda, University of Juba, Makerere University	6	18 590 801
65004	Experiments for Development of Climate Smart Agriculture (SMADTEV)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Holden, Stein Terje	Malawi	Lilongwe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Natural Sciences	3	10 000 000

68823	Co-creating knowledge for local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LDCs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Movik, Syme	Bangladesh, Nepal, Mozambique, Uganda	International Centre for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Pokhara University, University of Eduardo Mondlane,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70322	Samaki: Fisheries, nutrition, livelihoods, gender and rights in Tanzania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UIT)	Risan Johnsen, Hanne	Tanzania	The State University of Zanzibar, Institute of Fisheries Research - Zanzibar	6	19 481 621
71322	Adaptive Environmental Monitoring Networks for East Africa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Wolthusen, Stephen	South Sudan, Tanzania, Uganda	University of Juba, Dar es Salaam Institute of Technology, Makerere University	6	19 172 305
71762	Building Capacity to Crosslink Coastal Pollution with Climate Change BC5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Gutierrez Gonzalez, Maria Azucena	Ghana, Tanzania	University of Ghana, University of Dar es Salaam	6	2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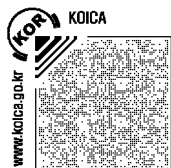
Sub-programme: 4. Political and Economic Governance							
ID#	Project title	Applicant organisation	Contact person	Partner countries	Project partners in the Global South	Duration in years	Amount applied for in NOK *final amount may be adjusted
61884	Governance for the SDGs (SustGOV)	University of Oslo (UiO)	Bank, Dan	Ethiopia, Malawi	Addis Ababa University, University of Malawi	6	19 941 666
68085	Enhancing Lean Practices in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University of Stavanger (UiS)	Ratnayake Mudiyansele, Chandima Ratnayake	Indonesia, Sri Lanka	Institut Teknologi Bandung - Indonesia, University of Moratuwa	3	9 916 556
69841	Women's, children's and nature's right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University of Oslo (UiO)	Wenger-Hagene, Elisabeth	Kenya, Malawi, Zimbabwe	University of Nairobi, University of Zimbabwe, University of Malawi	6	20 717 165

Sub-programme: 5.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D#	Project title	Applicant organisation	Contact person	Partner countries	Project partners in the Global South	Duration in years	Amount applied for in NOK *final amount may be adjusted
61086	Regional Programme for Indigenous, Intercultural and Communitarian HE	Oslo Metropolitan University (OSLOMET)	Krøvel, Roy	Colombia, Nicaragua	Universidad Autónoma Indígena Intercultural, Universidad de las Regiones Autónomas de la Costa Caribe Nicaragüense	6	19 999 091
63843	Sahel on Sahel: Collaborative Visual Anthropology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UiT)	Waage, Trond	Cameroon, Mali, Niger	University of Ngaoundéré, University of Maroua, University of Letters and Humanities of Bamako - MALI, Université Abdou Moumouni de Niamey	6	20 171 430
64782	Refugees on the Move - South Sudanese in Ethiopia, Sudan and Uganda.	University of Bergen (UiB)	Manger, Leif	Ethiopia, Sudan, South Sudan, Uganda	Addis Ababa University, University of Juba, University of Khartoum, Makerere University	3	9 913 969
69860	Medical and environmental anthropology for 21st century East Africa	University of Oslo (UiO)	Geissler, Paul Wenzel	Kenya, Tanzania, Uganda	University of Nairobi, Maseno University, Kenya Medical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 Tanzania,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69881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through Inclusive Education in EastAfrica	University of Agder (UiA)	Nilsen, Ann Christin	Rwanda, Tanzania, Uganda	University of Rwanda, Institute of Social Work - Tanzania, Makerere University	6	19 578 623
70841	Gender and digitalization across context (GENDIG)	University of Agder (UiA)	Leer-Helgesen, Arnhild	Tanzania, Uganda	University of Dar Es Salaam, Makerere University	6	11 111 567
70921	Partnership for Peace: Better Higher Education for Resilient Societies	University of Oslo (UiO)	Zyberi, Gentian	Benin, Colombia, Ethiopia, Palestine, Uganda	African School of Economics - Benin, Universidad de los Andes, Mekelle University, Birzeit University, Makerere University	6	19 987 389
71061	Preparing Media Practitioners for a Resilient Media in Eastern Africa	NLA University College (NLA)	Skjerdal, Terje	Rwanda, Uganda, South Africa	University of Rwanda, Uganda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of KwaZulu Natal	6	19 999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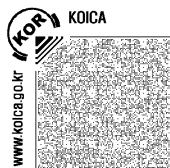
Sub-programme: 6. Energy							
ID#	Project title	Applicant organisation	Contact person	Partner countries	Project partners in the Global South	Duration in years	Amount applied for in NOK *final amount may be adjusted
59464	Education and Research within Energy at two Mozambican universities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Hovda, Sigve	Mozambique	Eduardo Mondlane University, University of Lurio	6	19 654 400
60082	Capacity building for socially just and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Nakakaawa-Junjuu, Charlotte	Kenya, South Sudan, Uganda	University of Nairobi, University of Juba, Makerere University	6	20 000 000
60220	Research Based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Hydropower Professionals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Dahlhaug, Ole Gunnar	China, Nepal	Wuhan University, Himalayan University Consortium	6	19 999 667
68583	Energy Technology Network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Nydal, Ole Jorgen	Ethiopia, Malawi, Mozambique, South Sudan, Tanzania, Uganda	Addis Ababa University, Mekelle University, University of Malawi, University of Eduardo Mondlane, University of Juba, University of Dar Es Salaam, Makerere University	6	22 000 000
69700	Capacity building in Renewable Energy Research and Education in Ethiopia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Adaramola, Muiywa Samuel	Ethiopia	Dilla University, Wondo Genet college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Hawassa University	6	19 197 583
70141	Capacity Building in Higher Education within Rock and Tunnel Engineering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Panthi, Krishna Kanita	Nepal	Tribhuvan University	6	19 345 972
70325	Climate change, Energy,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s and Governance	Oslo Metropolitan University (OSLOMET)	Braathen, Einar	Mozambique, Tanzania	University of Eduardo Mondlane, Lurio University, University of Dar Es Salaam, Tropical Research Centre for Oceanography,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tate University of Zanzibar	6	19 985 549
70480	Energy Economics, Governance and Research Competence Building (EEGREC)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Bergland, Olvar	Tanzania, Uganda	University of Dar Es Salaam, Makerere University Business School	6	19 986 463
71660	CO2-EOR for CCUS in Colombia and Ecuador: Norwegian energy initiative	University of Bergen (UIB)	Brattekås, Bergit	Colombia, Ecuador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del Litoral	6	19 996 616
71800	Hydraulic Research and Education Laboratory and Dam Safety in Ethiopia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Lia, Leif	Ethiopia, Nepal	Mekelle University, Eastern Nile Technical Regional Office - Ethiopia, HYDRO LAB PVT. LTD. - Nepal	6	19 695 581

〈부록 4〉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보이스아이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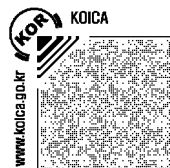
표지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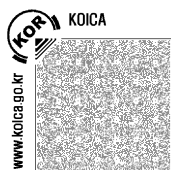
목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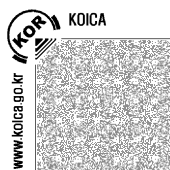
목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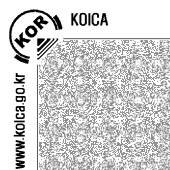
요약 1



요약 2



요약 3



연구정보 2023-14-432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발 행 2023년 11월

발 행 인 장원삼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경성문화사

I S B N 978-89-6469-619-4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3-14-432

978-89-6469-619-4 93320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s://www.koica.go.kr>